

제 1 장 대중매체는 제3의 선생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위력은 셈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보다 먼저 대중매체를 경험한 미국에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960년에는 부모, 교사, 친구, 성직자, 청소년지도자, 대중스타, 친척 등의 순이었으나, 1980년에는 친구와 또래집단이 부모와 교사를 추월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부모 다음으로는 TV, 라디오, 영화 등 대중매체가 차지하게 되었다(마리온 하워드, 1990 : 187).

〈표 I - 1〉 청소년의 가치 기준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사항

순위	1960년	1980년	비 고
1위	어머니·아버지	친구·또래집단	2위 상승
2위	선생님	어머니·아버지	2위 하락
3위	친구·또래집단	텔레비전·라디오·녹음기·영화	5위 상승
4위	성직자	선생님	2위 하락
5위	청소년 관련 단체 지도자들·카운셀러	대중의 우상, 음악·스포츠 스타들	1위 상승
6위	대중의 우상, 음악·스포츠 스타들	성직자	2위 하락
7위	가까운 친척들	신문·잡지	2위 상승
8위	텔레비전·라디오·녹음기·영화	광고	2위 상승
9위	신문·잡지	청소년 관련 단체 지도자들·카운셀러	4위 하락
10위	광고	가까운 친척들	3위 하락

우리나라 부모들도 대부분이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TV와 라디오를 도외시하고는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대중매체를 통한 여가선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중매체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가르쳐 주고, 다른 시청자들과 사회운동을 통하여 대중매체의 내용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한 승희외, 1990 : 227).

1. 짧은 시간에 대중매체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한국방송공사의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10~15세 청소년이 하루에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평일에는 2시간40분, 토요일에는 3시간54분, 일요일에는 5시간32분이고, 16~19세 청소년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평일에는 2시간18분, 토요일에는 3시간57분, 일요일에는 5시간9분이다.

그러므로 1990년 한해동안 10~15세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총 1,186시간32분이고 16~19세 청소년의 그것은 총 1,073시간30분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 수치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방학기간이나 휴가 등 청소년들에게 여유있는 시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실제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은 계산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 - 2〉 청소년의 연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요 일	하루 이용시간	연간일수	연간 이용시간
10~15세 청소년	평 일	2시간 40분	261일	696시간
	토요일	3시간 54분	52일	202시간 48분
	일요일	5시간 32분	52일	287시간 44분
	계		365일	1,186시간 32분
16~19세 청소년	평 일	2시간 18분	261일	600시간 18분
	토요일	3시간 57분	52일	205시간 24분
	일요일	5시간 9분	52일	267시간 48분
	계		365일	1,073시간 30분

대중매체가 무차별하게 안방을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접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오락의 제공”과 “정보의 창”의 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해서 하루 두시간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방법과 정보의 창으로서 대중매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하루 두시간으로 즐거운 하루를

(1) TV로 시작해서 TV로 끝나는 하루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중매체 중 나이가 보다 어린 층은 TV를 선호하고, 나이가 많은 층은 상대적으로 라디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지·책, 신문의 구독시간과 영화·연극의 관람 및 감상시간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TV나 라디오에 비교할 때 그 절대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표 I -3〉 10~15세 청소년의 일일 대중매체 이용시간

	TV	라디오	잡지·책	신문	관람·감상	계
평 일	2시간 4분	19분	13분	1분	3분	2시간 40분
토요일	3시간 16분	16분	16분	1분	5분	3시간 54분
일요일	4시간 40분	23분	20분	1분	8분	5시간 32분

자료 : 한국방송공사,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표 I -4〉 16~19세 청소년의 일일 대중매체 이용시간

	TV	라디오	잡지·책	신문	관람·감상	계
평 일	1시간 16분	35분	15분	2분	10분	2시간 18분
토요일	2시간 36분	44분	22분	2분	13분	3시간 57분
일요일	3시간 34분	47분	31분	2분	15분	5시간 9분

자료 : 한국방송공사,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양식을 보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TV를 이용하는 시간은 절대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시간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I -5〉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 중 TV시청시간의 비율

	10~15세 청소년	16~19세 청소년
평 일	77.5%	55.1%
토 요 일	83.8%	65.8%
일 요 일	84.3%	69.3%

결국 청소년들은 하루 두시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주로 TV를 보는데 그치고, 주말에 여가시간이 날지라도 대부분은 TV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루 2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2) 계획없이 성과없다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가지 공통된 사실은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메리놀 선교 연구소의 반예문 신부(Rev. Raymond F. Sullivan M.M.)가 만든 미디어 일기(media diary)는 매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반예문 신부가 이야기하는 미디어 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최창섭, 1985 : 77~80).

책자 형식을 갖춘 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목적이 들어 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스 미디어로부터 흘러 나오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나 매스 미디어와 접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 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행동 패턴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미디어에 대한 행동을 기록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알아 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성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꾸며져 있다.

1) 일기는 첫째날부터 열나흘날까지 매일 2주간 작성합니다.(하루를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비어놓고 계속 적어 나갑니다.)

2) 이 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3) 매스 미디어의 분류

- 텔레비전 : MBC, KBS1, KBS2, KBS3, AFKN
- 라디오 : FM방송, AM방송
- 신 문 : 일간지
- 잡 지 : 월간지, 계간지
- 영 화 : 극장영화, 가정·다방·고속버스내의 비디오 영화
- 음 악 : 유선방송,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 기타 : 팜플렛, 소설 등

* 주의 : 공부 및 업무관계로 인한 독서는 제외합니다.

예) 교과서, 전공서적

4) 일기를 쓰는 난은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 종류	시 간	제목(내용)	하고 싶은 말
텔레비전			

* 시간 : 하루에 텔레비전을 본 총시간을 쓰십시오.

* 제목(내용) : 제목이 기억나면 쓰시고, 제목이 기억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기억나는 사항들을 쓰십시오.

* 하고 싶은 말 :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 기억나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원칙에 의해 일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보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1〉

대학 3년생인 영희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 일어나자마자 라디오 FM방송을 켰다. 매일 아침 듣는 FM음악은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그러나 빈번한 광고로 음악의 흐름이 중간중간 중단될 때는 화가 났다. 7시30분의 아침식사 때까지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세수, 학교갈 준비를 한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내에서 영희는 1시간 동안 국문학 강의 교재를 읽었다. 영희가 책을 읽는 동안에도 버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의 유행가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국적불명의 유행가를 일방적으로 틀어놓은 운전기사를 원망했지만 운전기사에 항의하는 것도 귀찮아 참고 들고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영희는 클럽활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교내 시네클럽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진 45분짜리 불란서 영화〈행복〉을 보았다. 사람마다 행복의

의미가 다름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불란서 영화였다. 영화를 보고난 후 친구들과 음악다방에 가서 들을수록 매혹적인 마이클잭슨의 음악을 들으며 ○○여성잡지를 뒤적였다. 요즈음에 나오는 여성지들은 이런 곳에서 보기는 안성마춤이었다.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영화는 저녁식사후 가족들과 텔레비전에서 ○○쇼를 보았다. 약 20분 쯤 보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인기가수에 대한 청소년 관객들의 열광으로 스튜디오가 터질 것 같았다. 그후 30분 동안 일간지를 읽었다. ○○백화점의 세일광고가 눈에 띄었다. 나체의 모델에게 ○○백화점의 상징인 얼룩말 무늬를 그려놓고, 고객을 오라고 부르는 광고를 보면서 치욕감을 느꼈다. 전통적인 윤리관마저 무시한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이나 언론인의 양식이 의심스러웠다.

〈표 I -6〉 미디어 일기 요약

매스미디어의 종류	시 간	제목(내용)	하 고 싶 은 말
텔레비전	20분	○○쇼	출연기수 : 조용필, 윤시내 청소년 관객들의 환호성 — 자발적인지, PD의 기술인지.
라 디 오	1시간30분	FM음악산책	광고가 음악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신 문	30분	○○일보	여자가 상품인가? 역겨움을 주면서도 팔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잡 지	30분	○○여성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잡지, 머리 식히기엔 안성마춤.
영 화	45분	행복	여주인공의 인상적인 연기 — 꿈꾸는 듯한 표정이 좋았다.
음 악	1시간30분	버스내에서의 카세트 테이프 음악다방-마이클잭슨	별 생각없다.
기 타 합 계	— 5시간5분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방식의 계획이 중요하다. 대중매체의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신문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접하는 시간은 TV가 가장 많지만, TV의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TV의 프로그램 안내 방송보다는 일간신문의 “TV프로그램 안내”가 보다 적합하다.

왜냐하면 TV의 프로그램 안내방송은 정규방송 시작직후에 하는데 이시간부터 TV를 볼 수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고, 방송 중간 중간에 하는 안내방송도 주로 해당 방송국의 프로그램만을 안내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반면에 일간신문의 TV프로그램 안내는 모든 TV방송국의 당일(조간신문) 또는 당일과 다음날(석간신문) 프로그램을 한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신문이 “TV프로그램 안내”에서 방송시간 뿐만 아니라, 재방송 여부, 스테레오방송 여부, 음성다중방송 여부를 알려주고, 특집방송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약간의 소개 기사를 첨가하여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예고된 제시간에 시작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한가지 흠이나 이러한 것은 방송국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TV프로그램에 비교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은 비교적 변동이 적기 때문에 청취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일간신문의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은 라디오 청취 그 자체보다는 작업을 하는 동안이나 이동시, 가정학습시 등에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사전지식이 덜 필요하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는 각 신문이나 잡지마다 비교적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맞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다 다양한 정보나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할애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을 구독하거나 자신의 관심에 맞는 신문을 정기구독하며, 잡지 한 종류정도는 정기구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머지 잡지 등에 대한 정보는 친구들과 돌려보거나 학교 도서관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종합 일간신문보다는 스포츠 신문을 더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 잡지가 지나치게 많은 상업광고와 연예계의 소식으로 꽉 차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반면에 최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잡지가 출판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선정적인 스포츠신문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희망적인 측

면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생산자의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지만, 대중매체의 수요자인 청소년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하고, 청취하며, 좋은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청소년들은 하루하루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2) 정보의 창

(1) 값싼 소식통

청소년들은 “사회나 생활에 대한 정보는 주로 TV를 통해 얻으며, 연예에 관한 정보는 TV와 친구를 통해 얻고 있다”(MBC, 1991 : 37).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V가 모든 정보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으며, 사회나 생활에 대한 정보는 신문을 통해, 연예에 대한 정보는 친구나 잡지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이를 다른 각도로 분석하여 보면, 청소년의 주요정보원을 “대중매체”와 “대인매체”로 나눌 수 있다. 즉 TV, 신문, 라디오,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와 친구, 선생님, 부모, 형제, 이웃 등과 같이 대인매체가 그것이다. 2개 중복응답이지만 이를 재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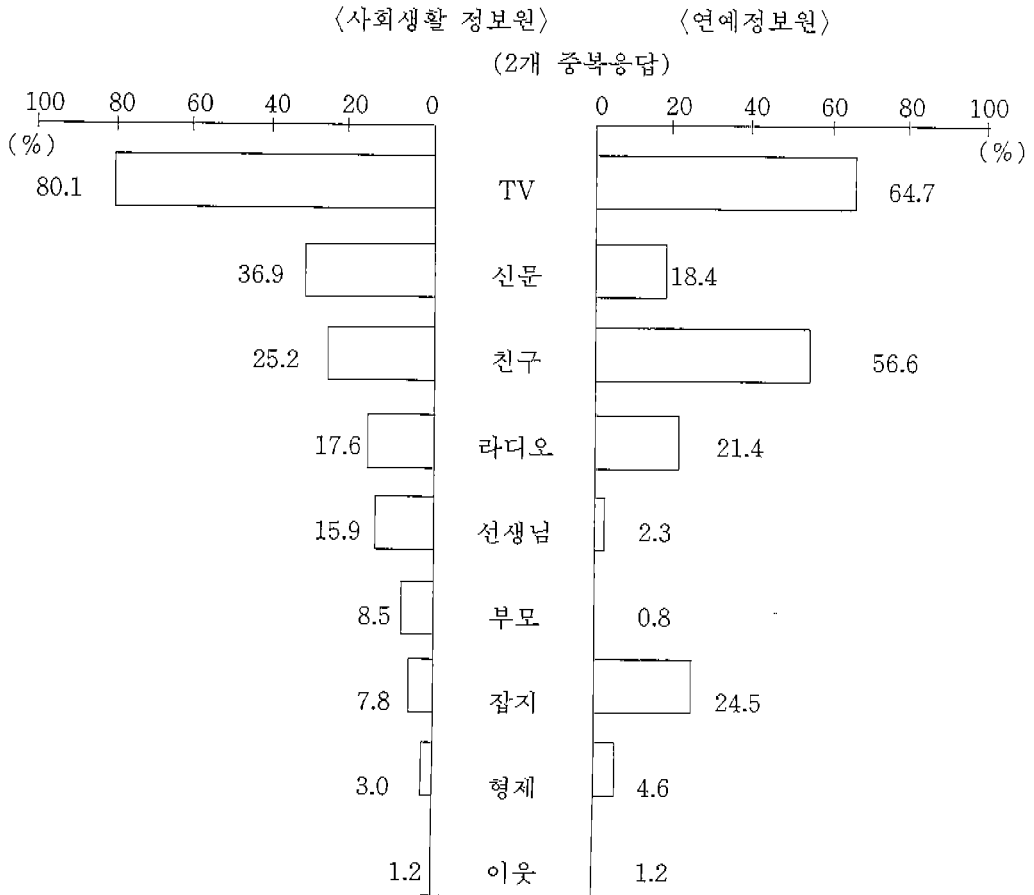
청소년의 주된 정보원중 생활정보는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인매체의 2.64배이고, 연예정보는 0.97배이다. 그러나, 친구들끼리 유통되는 대부분의 연예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포된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많은 정보를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직·간접으로 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 -7〉 청소년의 정보원 중 대중매체의 비중

	사회생활 정보원	연예 정보원
대 중 매 체	142.4%	129.0%
대 인 매 체	53.8%	65.6%

〈그림 I-1〉

청소년의 주요 정보원



이처럼 청소년의 주된 정보원이 대중매체에 편중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습득이 값이 싸기 때문이다. 대중매체 중 정보원으로서 그 비중이 높은 순서는 TV〉신문〉라디오〉잡지의 순인데, 이는 청소년들이 “직접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 TV, 신문, 라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주된 “생활정보”와 “연예정보”는 그 속성상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통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대면집단(가족과 이웃)내에서의 정보가 흔히 “수다거리”가 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익명집단”이 영향력을 형성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화제거리”도 스타들의 삶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책은 “하루치의 역사책은 신문밖에 없다”고 했다(정보성, 1991 : 226).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달치의 역사책은 월간잡지밖에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TV와 라디오는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대중매체는 그 속보성에 의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인매체에도 역사는 있다. 한 순간 친구와의 나눈 이야기는 일생동안 가슴속에 남아 있을수도 있고, 그 흔적이 편지나 사진과 같은 사물로 남아서 그 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역사속에 간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인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을 대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퇴색되거나 사라져 간다.

그러나 대중매체에는 역사가 있다. 하루하루 나오는 신문은 대개 가정과 직장에서 한번 읽혀지고 버려지지만, 도서관 등에서는 신문철에 의해서 장시간 보관된다. TV와 라디오 프로그램도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에 의해서 복사되어 보관된다. 또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TV방송국의 창사 30주년 행사는 대중매체가 과거와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준 실례이다. 다른 예로는 과학기술이 앞선 선진국가의 삶에 대한 현장취재물은 우리들의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3) 세계로 열린 창

대중매체는 시간의 벽을 넘나들 뿐만 아니라, 공간의 벽을 쉽게 넘나들고 있다. 최근 걸프전에 대한 미국 CNN 방송은 전쟁초차도 마치 스포츠 위성중계하듯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과시한 대중매체의 위력이라 할 수 있다.

세계로 열린 창으로 드나드는 정보가 우리나라의 경우 나가는 정보보다는 들어오는 정보가 많고, 그 정보도 대개는 AP, AFP, UPI 등 몇몇 세계의 주요통신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보다는 이들 통신사에 의해서 “다듬어지거나”“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 사회의 문화전파와 문화이식이 전쟁이나 식민지화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기술이전, 유학 등과 같이 주로 정보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중매체의 “세계로 열린 창”이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 뿐만 아니라,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 개편은 항상 일본 방송국의 프로그램 개편과 닮아간다는 지적이 있다.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비디오, 음반, 청소년용 잡지, 만화 등도 일본의 것을 꼭 닮아간다고 한다.

한 예로 최근 서울 YMCA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일본복사만화는 85종에 이른다. 이중 지난해 4월 「드래곤 볼」의 출간으로 청소년용 일본만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후 나온 일본복사만화는 63종인 것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집계하고 있다(동아일보, 1991. 10. 24). 더욱 부끄러운 일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유명 작품이라고 주장된 많은 만화가 일본만화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약간 개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가 세계로 열린 창으로서의 기능을 알차게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점은 크게 반성되어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모방없이 창조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보의 빈국에서 정보의 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점에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와 이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학교교육을 통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매체선택의 핵심

대중매체는 제3의 선생이지만, 대중매체의 오용과 남용은 새로운 사회문제일 수 있다.

대중매체의 폐해에 대한 연구는 대중매체 연구자들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였다. 그중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최창섭, 1985 : 28-30).

첫째, McDonagh는 1950년 텔레비전 수상기 도입이 독서뿐만 아니라 라디오 청취, 영화관람 및 대화의 양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Maccoby는 1951년 어린이들의 가정일, 유희 및 기타 매체사용시간을 텔레비전이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텔레비전이 도피장치로 사용된다는 연구도 많다. 그중 Maccoby는 텔레비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은 현실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 갈등을 느끼는 어린이가 대행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라 가정한 뒤 이러한 만족은 정상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보다는 텔레비전의 환상세계를 통해 성취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Wiebe는 프로그램의 문화성과 시청자수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관계는 미

디어가 최소한의 지적노력을 필요로 하고 즉시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끼어들기를 원치않는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셋째, Glynn은 텔레비전이 수동성과 의존성을 길러주고 무의식중에 시청자의 성격을 모양짓는다고 보았다.

넷째, 미디어가 청소년의 공격행위나 폭력행위에 영향을 끼치는가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미국의 「폭력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전국위원회」는 미디어 내용에 묘사되는 폭력에 대한 꾸준한 섭취는 인간의 성격과 태도에 역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인간행위의 폭력성향을 복돋아 주고 폭력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도덕률이 와해되어 무리없이 수용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진도 폭력비디오를 시청한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폭력 및 공격적인 심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윤진, 1991).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중매체를 우리 생활에서 격리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매체를 선용하는 길을 배워야 할 것이다. 즉 대중매체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수용자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선별하고 취사선택하는 수용자의 자질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1) 선택의 폭은 넓고

(1)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최창섭은 “대중매체에 대한 기존의 관심이 〈미디어 효과연구〉라는 차원에 머물러 왔고 매스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여러가지 역기능적 피해를 극복하거나 예방할 대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미디어 교육론을 쓴 바 있다(최창섭, 1985).

그는 이책에서 미디어 교육론,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외국의 미디어 교육의 현황,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교육, 결론 및 제언을 한 후에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책을 읽어보면 대중매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데 그는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의 기본 영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최창섭, 1985 : 89).

매스 미디어 교육의 기본목적은 수용자로 하여금 식별력 있고 비판적이며 미디어를 이해할 줄 아는 청취자·독자·시청자로 만드는 데 있으며, 또한 어린이로 하여금 매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진실을 얻도록 하려는 데 있다. 미디어 교육의 교과과정 진행은 국민학교 초반(1, 2, 3학년)에는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것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주제에서 점차 복잡한 주제로 확대시켜 나가며 국민학교 중반 이후(4, 5, 6학년)부터는 영화·라디오·신문 등을 추가하여 국어·산수·사회·음악교육과도 연관시키면서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이용형태·능력이 확대 완성되도록 계획되었다. 텔레비전 시청습관 형성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외국의 경우 5~16세로 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시작인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계획하였다.

미디어 교과과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매스 미디어에 대한 분별적 사용능력의 배양
- ② 텔레비전·영화·라디오·신문의 본질과 기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증진
- ③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은 내용,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내용 및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즉 매스 미디어를 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skills)의 계발(啓發)
- ④ 미디어 사용에 있어 분별력을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습득
- ⑤ 미디어와 관련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적 태도와 가치판단 능력의 개발
- ⑥ 매스 미디어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개인적·사회적 책임감의 함양 등이다.

(2) TV 공화국

TV가 안방을 점령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안방 뿐만 아니라 응접실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방에까지 TV가 들어가 있다. 최근 MBC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평일의 경우 68.3%가 30분~2시간 정도 TV를 시청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86.8%나 된다(MBC, 1991 : 38).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MBC TV프로그램은 3가지 중복응답일 때 다음 표와 같다. 대체로 쇼, 코메디, 영화, 연속극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문화발전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영화(44.4%), 쇼(14.6%), 코메디(10.0%), 연속극(9.2%) 등의 순이고 스포츠, 특집물, 뉴스, 교양프로그램 등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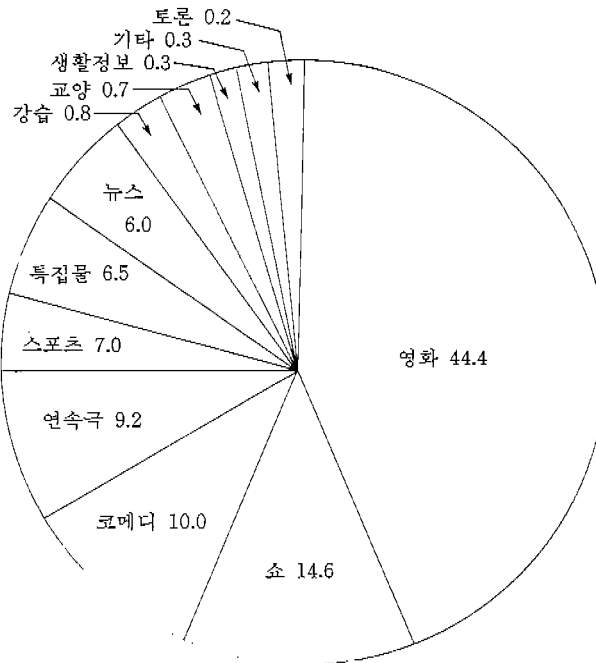
〈표 I-8〉

청소년이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순	위	프 로 그 램 명	%(중복)
1	위	일요일 일요일 밤에	39.2
2	위	우리들의 천국	27.6
3	위	까치 며느리	15.2
4	위	맥랑시대	11.1
5	위	유머 1번지	10.6
6	위	천사들의 합창	8.0
7	위	토요명화	7.9
8	위	야망의 세월	7.8
9	위	산너머 저쪽	7.7
10	위	한바탕 웃음으로	7.4

〈그림 I-2〉

10대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



TV프로그램의 유익여부는 프로그램 장르에 있지 않고, 각 프로그램에 달려 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의 시청 경향을 무조건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TV가 오락기

능과 함께 보도와 교양기능을 갖추고 있고, 오락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을 지양하기 위한 방송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청소년 시청자가 보도와 교양기능을 외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TV가 일정한 부피와 무게를 가져서 아직은 휴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라디오는 work man의 출연으로 휴대하기에 간편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라디오의 청취는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MBC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평일의 경우 1시간 이상 라디오를 청취하는 비율이 39.8%, 주말, 공휴일의 경우 1시간 이상 라디오를 청취하는 비율이 54.0%로 나타났다(MBC, 1991 : 38).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은 3가지 중복응답일 때 다음 표와 같다. 대체로 국내 대중가요와 팝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 -9〉 청소년이 즐겨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순	위	프 로 그 램 명	%(중복)
1	위	별이 빛나는 밤에	39.4
2	위	우리는 하이틴	13.4
3	위	신해철의 밤의 디스크쇼	13.2
4	위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11.5
5	위	고현정의 인기가요	10.9
6	위	주병진, 노사연의 100분 쇼	8.9
7	위	배철수의 음악캠프	6.8
8	위	가위 바위 보	6.7
9	위	깊은 밤 짧은 얘기	5.5
10	위	싱글 뱅글 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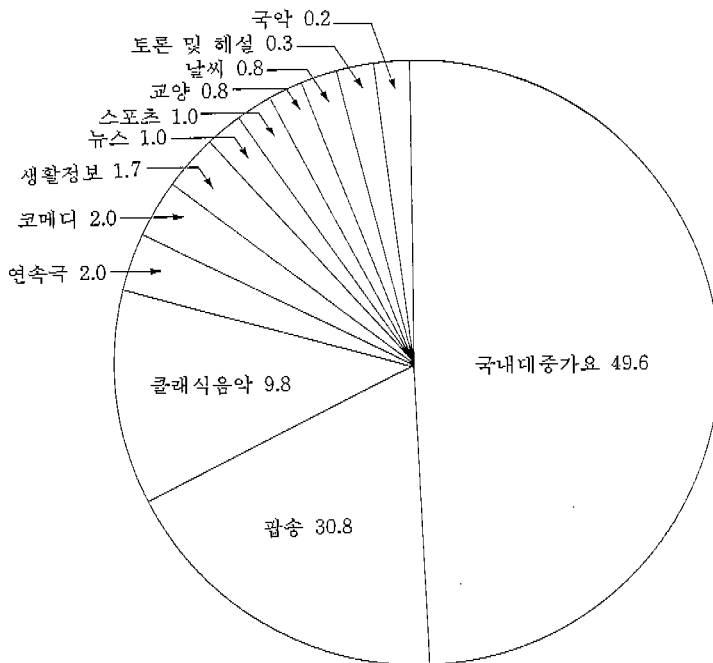
이러한 반응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문화발전연구소의 한 연구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국내대중가요(49.6%), 팝송(30.8%), 클래식음악(9.8%) 등의 순이고, 연속극, 코메디, 생활정보, 뉴스 등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청소년들이 국내대중가요와 팝송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은 국민학생 어린이에게까

지 거슬러 내려간다. 최근 현대 리서치연구소가 KBS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어린이 노래문화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학생들이 동요보다 가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내 국민학생 4~6학년에 대한 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20곡중 가요가 12곡을 차지했다. 특히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가요인데, 오직 하나뿐인 그대(1위), 날 울리지마(2위), 이별여행(3위), 이젠(4위),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전(5위)의 순이었다(한국일보, 1991. 10. 15). 이러한 반응은 마치 “가요Top 10”의 순위를 보는 듯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10명 중 6명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라디오 방송이나 음악을 듣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주된 이유는 “기분이 좋아진다”(24.7%), “졸음을 피할 수 있다”(16.3%), “음악 자체가 좋아서”(14.8%),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13.7%), “공부가 더 잘 된다”(11.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10대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청취가 생활화된 청소년에게 동요, 가곡, 고전음악보다 대중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할 일은 아니다. 최근 TV나 라디오는 저녁 가족시간대에 성인을 위한 쇼 프로그램

램이나 가요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고, 동요나 가곡도 청소년의 정서를 반영한 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어린이 노래문화조사에서 동요의 인기순위는 과수원길, 등대지기, 곶향의 봄, 방울 꽃, 섬집아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노래는 하나같이 “서울시 내 어린이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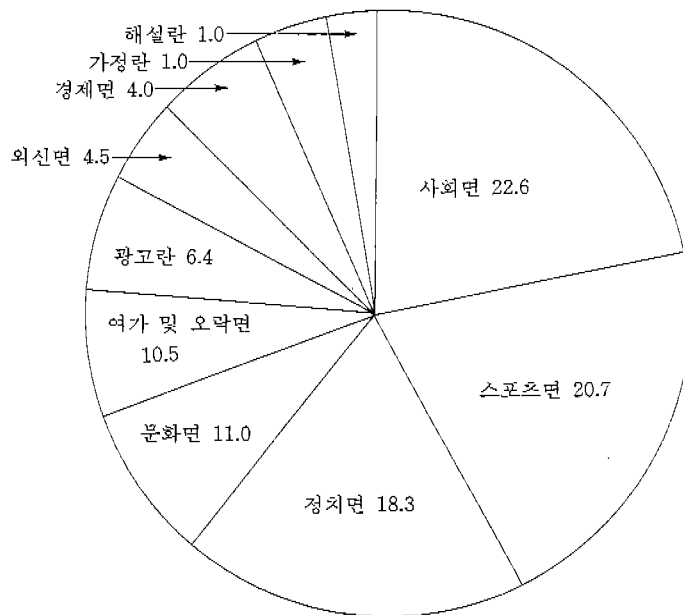
2) 아는 것이 힘

(1) 정보화시대에서의 적자생존

대중매체의 특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확일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정보를 독과점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할 때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그림 I -4〉

10대 청소년의 신문 관심기사



그러나 대중매체의 정보도 만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민과 후진 국민이 누리는 대중매체의 혜택은 매우 커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고, 이는 한 나라안에서도 계층간에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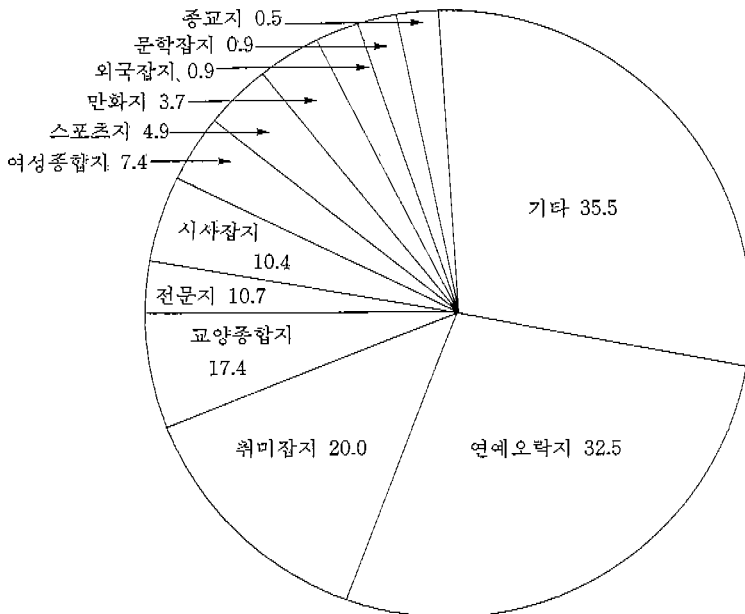
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TV수상기 보급대수는 저 GNP국가의 경우 5.4대 일 때 중GNP 국가는 22.5대이고, 선진제국은 333대라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일간신문, 라디오, 전화기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90 : 310).

또한 직접위성방송, 유선 텔레비전(CATV), 문자다중방송(teletext), 종합정보통신망(ISDN)등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매체의 이용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

예컨대 일본 NHK의 직접위성방송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안테나를 세우면 NHK를 볼 수 있고, 유선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송설비와 함께 별도의 수신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림 I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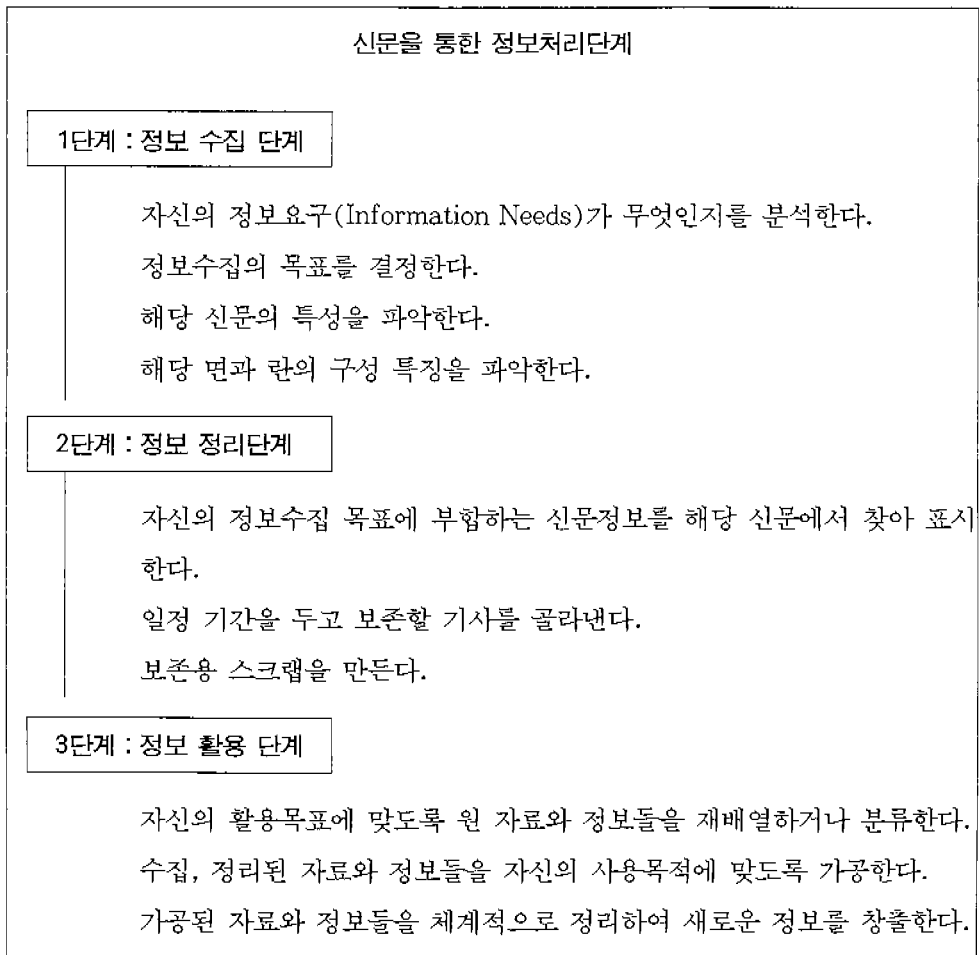
10대 청소년의 구독잡지종류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힘이고,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각자 정보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에 출간된 「신문소프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들은 “이책은 신문을 읽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 메뉴얼이다. 동시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200원의 정보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정보전략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책의 기획은 성인독자를 염두하고 이루어졌지만 이책이 강조하는 신문 활용법은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아직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신문을 거의 읽지 않고, 읽더라도 사회면, 스포츠면, 정치면 등 청소년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없는 세상의 “이야기거리”나 읽고 신문을 정보수집보다는 심심풀이로 읽는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잡지구독에서도 유사한데, 청소년들은 교양잡지나 전문잡지보다는 연



예오락지나 만화 등을 선호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보고, 듣고, 읽고 즐기는 수준에서 대중매체를 자신의 소식통으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가공)에 이르는 연속적인 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

앞에서 인용한 신문소프트는 신문을 통한 정보처리 단계를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정보성, 1990 : 43). 비록 대중매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중매체를 스스로의 소식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비슷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2) 대중매체의 허와 실

최근 한 여성잡지가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고 창간 3개월만에 폐간되었다. 이 사건은 대중매체가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고 때로는 허위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이다.

청소년들 중에는 TV나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거리”를 모두 사실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매체는 흔히 그 매체의 속성상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어렵다. 즉 대중매체는 항상 기사거리나 찍을 거리를 찾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건은 흔히 간과되고 비상식적인 사건만 기사거리가 되기 쉽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개를 구한 것은 기사거리가 되지 않고, 개가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한 것은 기사거리가 된다. 몇 년전 주요 일간지가 대서특필한 이 사건은 후에 오보이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신문 기자가 마감시간에 쫓겨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기사를 썼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대중매체의 오보는 적지않다. 그중에서 현재도 살아있는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다”는 오보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해당 기사와 정보의 신뢰도를 셈하여 보아야 한다. 해당기사가 취재기사인지, 추측기사인지, 타매체에서 인용한 기사인지, 본지 취재기사인지, 보도기사인지, 해설논평기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기사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대개의 경우 추측기사보다는 취재기사가 그리고 논평기사보다는 보도기사가 신뢰성이 높다.

신문소프트는 조작된 정보를 골라내는 방법으로 다음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정보성, 1990 : 52-53).

첫째, 단정형 기사에는 기자나 필자의 주관이 들어있지 않은가에 유의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전문(傳聞)형 기사에 유의한다.

셋째, 상투화되고 획일적인 기사는 무시한다.

넷째, 형용사를 삭제하고 정보의 골격만을 읽는다.

다섯째, ‘뭘뭘처럼 보인다’, ‘뭘뭘일 것이다’ 등 미래 예측형 기사에는 기자의 바람이나 의지가 게재될 수 있다.

수용자가 대중매체의 허를 버리고 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뱅크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원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뱅크를 만들어가는 요령과 절차는 기사의 출처(보도자료 등)를 찾아서 앞서 말한 정보처리단계를 거치면 된다.

신문 뿐만 아니라 잡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정보수집과 해당정보의 신뢰도 판별력은 수용자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체득된다.

제 2 장 대중매체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늘날 방송은 현대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자가 되었다. 새로운 소식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고 있으며, 현대인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방송과 더불어 보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방송은 기능상 대량전달의 가능성과 감각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방송은 현대인들의 사회적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각종의 인지적, 정의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영향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性に 관한 지식도, 재미있는 언어도, 멋있는 옷차림도, 우스운 태도나 행동도 모두 방송, 특히 TV를 통하여 보고 배우고 있다. 방송은 청소년에게 모방의 대상이고, 가치판단의 근거이며 자신의 소망을 설정시켜 주는 대상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더구나 그 영향력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그 어떠한 사회화 기관 보다도 강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중매체 특히 TV를 볼 때 사전에 그것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TV를 잘 보는 방법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방송법상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으로 나누었으나 프로그램은 방송의 기능에 따라 대개 보도와 교양,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대상에 따라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주부 프로그램, 농어민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포맷에 따라서는 비드라마 프로그램, 드라마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교양 프로그램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 시청자는 텔레비전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교양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양이란 전문적, 직업적이 아니면서 지식과 정서와 인격을 높이는 것이기에 일정한 프로그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양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로 그 내용상 인문, 자연, 사회과학 분야로 식견을 넓히고 정서를 기르며 문화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된다.

교양 프로그램 종류에는 토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토크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은 좁은 의미로는 스피치, 해설, 논설과 강의를 내용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일컬으나, 넓은 뜻으로는 인터뷰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을 총망라하는 피쳐물 전체를 총칭한다. 굳이 토론 프로그램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토크 프로그램은 흔히 출연자가 한두 사람 정도가 보통이고 전문분야의 인사나 저명 인사의 스피치에 중점을 두며, 토론 프로그램은 세 사람 이상의 출연자가 일정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견해를 밝히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현재 인기가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

MBC의 ‘세상사는 이야기’(토요일 밤 9:40~10:30)는 시청자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드라마나 다른 ‘여과지’를 거치지 않고 ‘생’으로 방송전면에 수용함으로써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시간이다.

시청자인 서민들이 엮어가는 이야기로, 각자의 영역을 성실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음으로써 계층간의 갈등과 단절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토크쇼 부부만세’(일요일 밤10:00~11:10)는 부부가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2) 토론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은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며, 시청자들에게 사회화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강현두외, 1989 : 308). 그러나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왜곡해 전달해 준다든가, 그릇된 여론 조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토론 프로그램은 6·29 이후 방송의 자유화, 민주화 지향 과정에서 정규 프로그램 편성되기 시작했다.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전화를 받습니다’(토요일, 밤 10 : 45~01 : 00)는 전문가나 출연 방청객, 전화 참여자가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우리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

MBC의 ‘MBC 시사토론’(금요일 밤 9 : 50~11 : 00)도 불만한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토론 프로그램은 민주화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릇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3)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방송매체가 지닌 보도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생활상을 기록보도하는 것이며, 호소력있는 일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생활상을 기록 보도하고, 정보전달뿐 아니라 설득력 있는 영향력을 주므로, 인간을 격려하여 그 자신과 관련되는 중요성에 대해 사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MBC의 ‘PD수첩’(화 오후 11 : 00~11 : 45)은 그때 그때 사회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거나 사람들 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꼭 다루어야만 할 문제들을 시사성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보여주되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이라는 사건의 표면에서 머물지 않고 문제들이 파생된 원인을 법률, 정책, 사회구조 등에서 찾으려는 거시적인 안목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인생에 있어 폭넓은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인간시대’(월 오후 8 : 05~9 : 00)는 휴먼 다큐멘터리로 한 인간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MBC의 휴먼 다큐멘터리인 ‘우리시대의 명인’(목, 밤 11 : 00~11 : 45 현재는 종결

된 프로그램)은 우리들에게 참신한 느낌을 받게했던 프로그램중의 하나이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서 명인의 모습을 찾아내었던 이 프로그램은 명인이 가득한 우리시대에 진짜 명인이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깨우쳐 주었다.

(4) 청소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은 사회화에 있다. 대중매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건과 위생, 교육, 독서, 소비생활, 성역할, 공격성향, 사회적 관계의 문제, 인지적·정서적 기능의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어린이가 직접 진행하는 뉴스나 정보 프로그램, 만화영화, 어린이 드라마, 어린이 쇼, 인형극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유아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는데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오락적인 측면에 우선한다면 이 프로그램들은 교육적 측면이 우선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이다. MBC의 ‘뽀뽀뽀’(매일 아침 8:00~8:20) KBS의 ‘TV 유치원’(매일 아침 8:00~8:20)이 방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현상이나 자연세계의 탐구, 사회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나 형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역할, 정서적 관계 배우기, 기본생활 습관 형성하기, 언어와 몸짓으로 의사표현하기 등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13세에서부터 20세 즉 1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관심을 다룬 정보 프로그램, 드라마, 음악, 버라이어티 쇼 등이 있다.

MBC의 청소년 드라마로 ‘우리들의 천국’(금, 오후 8:05~8:55)이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건전하고 발랄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현실감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권위 의식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질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자유분방한 가족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도 그 속에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KBS-1TV의 ‘맥랑시대’(수, 오후 7:35~8:25)는 청소년들의 세계를 꾸밈없이 그려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소재로 하면서도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의 멋과 낭만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해결해가는 슬기와 인내, 학교와 가정생활을 통해 펼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삶과 행복 등 건강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 신설된 MBC의 ‘최불암의 청소년 문화기행’은 청소년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나를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2) 보도 프로그램

뉴스매체로서의 방송보도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특히 영상적인 요소를 지닌 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와는 달리 즉시성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속보성과 편재성에 있어서도 어느 매체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최준, 1980 : 115).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방송보도의 영향력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편 전파의 물리적 유한성과 공익성, 대중성 등으로 인한 법적, 정치적 통제가 신문보다 더한 것이 문제가 되는 요인중의 하나다.

보도 프램에는 뉴스뿐 아니라, 현장 중계 프로그램, 심층보도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뉴스 프로그램

즉각적이고 적시적인 뉴스로서 정보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건기사와 뉴스에 포함되어 시청자들이 부담없이 볼 수 있게 하는 피처물, 뉴스 요소를 분석하고 뉴스의 의미를 부여해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해설, 논평 그리고 신문의 사설과 마찬가지로 방송기관의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방송사설 등이 있다(최창섭, 1991 : 191).

‘KBS 뉴스광장’(1TV, 월-토, 오전 6:50~8:00), ‘MBC 뉴스 와이드’(월-금, 오전 6:00~8:00), ‘KBS의 9시뉴스’, ‘MBC의 뉴스데스크’ 등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일방적인 전달체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뉴스시간만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되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도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살아 꿈틀대는 뉴스의 현장들이 그곳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보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뉴스보도는 사건의 한 측면만이 제시되는 것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약 57.8%, 비교적 여러 측면이 제시된 것이 약 39.8%이며, 이에 비해 여러 요인들을 연관시켜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약 3.3%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강명구, 1990 : 60).

(2) 현장 중계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 등을 직접 중계하여 동시성, 긴박감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BS-2TV의 ‘생방송, 전국은 지금’(아침 7:00)은 싱싱하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시청자의 아침밥상에 제공하는 와이드 기획으로 출근 준비에 바쁜 아침시간, 국내외의 생생한 화제와 생활정보로 현대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는데 현재 KBS-1TV의 ‘6시 내고향’(월-목, 오후 6:10~6:55), 과 ‘신 전국일주’(일, 오전 10:10~11:00)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에서 ‘신 전국일주’의 경우는 교양성과 오락성이 가미된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의 풍물을 ENG로 취재하여 퀴즈 형식으로 진행한다.

(3) 심층보도 프로그램

심층보도란, 사건을 될수록 자세하게 전달해 주고 사건의 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주변 상황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지향적(event-oriented)이라기 보다는 상황 지향적(situation-oriented)인 보도방식이란 점이다. KBS-1TV의 ‘KBS 집중기획’(월~목, 오후 10:00~10:50)과 2TV의 ‘기동취재-현장’(월~금, 오후 9:20~9:55)이 방송되고 있다.

특히 ‘기동취재-현장’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와 함께 생활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의식주에서 교통, 유통, 물가, 풍속 등의 정보를 알아내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다.

(4) 특집 프로그램

갑작스런 사건의 발생 또는 새로운 전환기에 선 사건 등을 하나의 보도특집으로 기획하여 제작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집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3) 오락 프로그램

(1)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드라마는 현실세계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마치 현실인 것처럼 각색, 재현함으로써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을 것이다.

KBS-1TV의 ‘TV 문예극장’(매월 제2일요일 오후 10:00~11:40)은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의 질적 향상과 사회 대다수 대중들의 정서반영과 대중적 삶의 문화적 향상 이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MBC의 ‘미니시리즈’는 보는 이에게 다음 방영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진한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다.

대부분의 드라마는 멜로드라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생활법을 드라마인 ‘사람과 사람’과 현대사를 조명한 대하드라마 ‘땅’은 예외라 하겠다(현재는 모두 종결된 프로그램).

MBC의 ‘전원일기’(화, 밤 8:05~9:00)는 1980년 10월 첫 전파를 탄 이후 지난 11년 동안 개성과로 구성된 환상적인 배역진과 함께 술한 화제를 남기면서 안방의 다정한 이웃으로 계속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다.

KBS-1TV의 ‘가족’(월, 오후 7:35~8:25)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잃어버린 고향의 향수처럼 우리들 가슴에 파고들어 잔잔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기에 치중하여 소재의 폭을 좁히곤 하는 여타의 홈 드라마와는 달리, 사회저변에 산재해 있는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제목대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2) 코미디 프로그램

우리 텔레비전의 대표적인 오락프로그램에서 드라마 못지않게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코미디이다.

왜 코미디를 보는가? 코미디의 본질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변은 웃음을 준다는 것이

다. 따라서 웃기 위해, 웃으면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채널을 코미디에 맞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웃음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불만과 긴장을 해소시켜 주며 우리 정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 이처럼 불안과 긴장의 해소라는 한 가지 카타르시스 효과만으로도 코미디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치유적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방영되는 텔레비전 코미디물은 주말 황금시간대의 KBS-2TV의 ‘유머 일번지’(일요일, 밤 6:50~7:50)와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일요일 밤 6:00~7:00)가 있고 주중에는 KBS-2TV의 ‘한바탕 웃음으로’(월, 밤 8:05~8:55)와 MBC의 청춘행진곡(월, 밤 7:15~8:00)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코미디의 본령이 웃음 자체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코미디는 참나적인 웃음이나 청량제가 아니라 모순과 횡포를 몰아내고 사회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가 공정하고 명랑하게 가동될 수 있는 지적인 윤희유 구실을 해야 할 것이다.

(3) 쇼 프로그램

대중들의 삶과 대중들의 기호에 맞는 가장 넓게 열린 문화가 바로 쇼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과거의 쇼 프로그램은 방송의 주종을 이루면서 대중영합 일변도로 일면 저질성, 퇴폐성의 대명사로 불리워 오면서 연예, 오락방송의 제반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최창섭, 1991: 2-3).

쇼 프로그램의 경우 특히 청소년층의 선호도는 각별하다. 임시위주의 교육제도 틀 안에서 자기 세대에 적합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길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꽤 다행한 일이다. KBS의 ‘젊음의 행진’(금, 오후 8:05~8:55)은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장수 프로그램이며 MBC의 ‘여기 젊음이’(목, 오후 7:15~8:0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다.

(4) 퀴즈, 게임, 경연 프로그램

시청자의 경쟁의식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프로그램, 명사나 연예인으로 이루어지는 패널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며 각종 지식, 상식

등을 알아보는 내용에서부터 출연자의 재담, 즉흥적인 행동과 같은 오락적인 내용 등 다양하다(최창섭, 1988 : 59).

KBS-2TV의 ‘열전! 달리는 일요일’(일, 아침 9:50~10:50)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개 오락프로그램으로 무미진조하기 쉬운 일요일 아침을 신나게 해준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출연하는 주인공들도 연예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라는데 있으며, 매번 1~2명의 연예인이 초대손님으로 함께 하지만 이들 역시 출연팀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데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오락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시청자의 직접참여, 현장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KBS-1TV의 ‘전국노래 자랑’(일, 오후 12:10~1:20)은 전국의 노래 잘하는 시청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으면서 끈질기게 시청자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소박한 우리 이웃사람들의 참여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2.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바라는 프로그램

1) 좋아하는 프로그램

청소년과 아동의 텔레비전 시청형태 및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어린이들은 63% 정도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37%의 어린이들도 가끔씩 시청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어린이들이 신문, 만화, 라디오에 노출하는 것과 TV시청은 질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매체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TV를 덜 시청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윤희중, 1988).

어린이가 TV를 시청하는 주된 동기는 재미있기 때문이었고 그외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는 어린이들에게 주요 오락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 어린이 프로그램은 크게 오락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게임, 노래, 만화 등이 혼합된 버라이어티 쇼), 정보교양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국민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이며, 특히 고학년(56%)에 비하여 저학년 학생들이(62%)이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보·교양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나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기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이 좋을수록 TV시청량이 낮아지고 있었으나 경·중시청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규제 여부에 따라 시청량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청량이 낮아지는 것만은 확실하여 부모의 관심 여하에 따라 어린이의 시청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청한 내용에 대해서 부모와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매우 낮아 내용에 대한 가정에서의 통제가 결여되어 있음이 TV영향력—특히 부정적인 효과—을 상쇄할만한 여과들의 부재를 시사하였다. 특히 TV 시청을 통해 고학년보다 더 민감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저학년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가 54%에 달하고 있어 부모의 역할이 기대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었다.

어린이의 프로그램 선호도를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은 크게 연속극, 만화, 외화화 같은 드라마류와 게임, 퀴즈, 노래, 정보전달 등의 가벼운 오락과 교양 위주의 비드라마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드라마들이었고 그중에서도 만화가 가장 선호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들 만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정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만화를 즐겨보는 이유는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일정한 길이로 단락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등장인물의 성격이 선과 악의 표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등장인물과의 심리적 합치가 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가 결말을 곧 예측할 수 있도록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상희, 1984 : 197-198). 만화의 이런 특성은 어린이들이 이해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내용보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다원적이고 복잡한 전개보다는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전개법을 좋아하는 수용자 속성을 지닌 것과 일치하고 있다.

만화는 크게 우주공상과학물과 순정드라마, 비현실적인 공상의 세계를 다룬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 우주공상과학물이 주로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별들의 전쟁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만화와 非전쟁만화로 나눌 수 있겠다. 그뿐 아니라 전쟁만화가 주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非전쟁만화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만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주요 정서는 가장, 공포, 명랑 그리고 슬픔의 3가지로 대별된다. 명랑함과 슬픔의 정서를 주조로 하는 이들 만화는 비극적 숙명론,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 우울함과 어둠과는 거리가 먼 사랑과 우정, 믿음, 진실의 가치 등 슬픔을 종교적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메시지를 주제로 하고 있어 어린이 정서순화에 그렇게 역기능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폭력물의 경우는 그 주인공들이 동물, 인조인간, 외계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종일관 계속되는 총격전, 난투, 폭파, 폭발, 납치, 협박, 살인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폭력에의 과잉노출이 지적될 수 있다.

만화가 비록 환상적이고 가벼운 오락형태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폭력비율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3배나 높았으며 어린이들은(적어도 국민학교 2학년까지는) TV배우의 다른 형태, 즉, 만화 주인공과 실제 인물을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윤희중, 1988 : 225-227). 문제는 만화에서의 폭력이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의 강도나 양이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서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폭력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논의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다.

폭력이 일으키는 정서적 효과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은 우리나라 TV에 방영되는 만화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것은 비록 이들 수입만화가 특정 국가의 문화패턴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일찍부터 외래문물과 접하는 빈도가 잦음으로 해서 상호간의 이해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부정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외국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패턴을 갖게해서 어린이들의 의식을 ‘외국화’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 시청패턴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선과 악, 주인공과 중, 남과 여의 대립과 대비가 단순하게 도식화되어 있고 둘째, 대부분의 전쟁만화가 정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 파괴를 정당시하고 있어 목표가 수단에 선행한다는 비민주적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드라마 배경이 거의 중상류층에 몰려있어 불우한 이웃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기 힘들었고 넷째, 조화와 문제의 무난한 해결이 지배적이어서 의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우려가 있다. 다섯째, 학교와 가정에서의 한정된 관계만 설정되고 있어, 다원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는 면이 약하다.

텔레비전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 연구 중에서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형태를 인터뷰

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청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이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약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선진, 1984 : 64-65). 한편 한국의 부모들은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프로그램선택을 청소년 자신보다 부모가 허용하는 것만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통제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교양이나 뉴스보다는 범죄수사물, 코미디와 같은 성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봄으로써 어떤 생각을 갖는가를 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어린이 83.76%가 텔레비전 주인공을 귀감의 인물로 삼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으며 텔레비전을 단순한 오락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약 84%의 어린이가 텔레비전 주인공을 동일시한다는 보고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텔레비전의 영향이 적지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텔레비전 장면을 모방해본 적이 있거나 모방충동을 느껴본 일이 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희의 농촌 아동 연구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내 본 학생이 31%(남), 16%(여)로 나타났으나, 이상희는 이 결과를 모방이 적은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모방이 적다 또는 많다는 해석은 주관성이 불가피하게 게재되었으나 남녀 전체로 평균 23%가 모방해본 경험이 있다는 보고결과는 다른 대중매체나 인적 사회적 행위자의 영향과 비교할 때 적지않은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텔레비전 시청시간량은 현대적 가치관념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필요한 경우의 살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도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텔레비전을 통한 미국문화 노출정도와 미국문화에 대한 정보량과는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넷째, 텔레비전 시청시간량은 정직·정의와 같은 가치관과는 유의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명성가치(배우나 영웅처럼 유명해지고 싶다)와는 정적상관을 보인다.

지금까지 고찰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 ① 한국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시청에 보내는 시간은 적지 않으며,
- ② 성인대상의 애정영화나 수사물, 폭력물에 대한 흥미도가 높으며,
- ③ 텔레비전이 모방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으며,
- ④ 청소년의 가치관 및 태도에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바라는 프로그램

(1) 어느 고등학생의 바램

RADIO, 학생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엄청난 청취율로 인해 그 파급성의 폭은 우리 학생들 의식까지 지배할 정도이다. 그러기에 방송에서 채택되고 있는 언어라든지 내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오후 10~오전 2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방송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거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감수성을 자극시키기에 더욱 좋은 가요라든지 팝송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가 공통점으로 안고 있는 철저한 우리 문화의 배격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삭막해져가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 균형이다. 그런 일을 맡아 힘써야 할 방송이 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뒤져서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자랑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또 그런 것을 재미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의 사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진 방송국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거부되고 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배제하기 보다는 청취율에 급급하지 말고 오직 그 시간대의 개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성을 우리 것을 찾는 데에 할애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믿음을 주는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는 외래문화에 찌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자연스레 받아들여 지지 않고 하나의 품물로서 잠깐의 즐거움으로 변질된 것 같다. 또 그것마저 배제되고 있다. 송충이나 감주보다는 코카콜라나 사이다가 더 입맛에 붙고 옛이나 강정보다 초콜렛이나 햄버거가 자연스레 받아들여 지고 있다.

과연 이들 10대에게서 장래 우리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자기타가 수도 없이 팔리고 전자악기가 무섭게 들어오는 데, 우리의 전통 악기는 묵혀지고 있다. 이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큰 힘은 바로 매스컴이다. 방송의 이점은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의 방송이여! 정말 우리의 것이 되어달라. 몇 사람의 방송이 아닌, 우리와 함께 숨쉬는 우리의 방송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외래문화와 저질문화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찾아달라. 우리의 것을 ….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송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새롭게 달라지고 구수한 품미가 날 방송을(황석권).

(2) 어느 대학생의 바램

TV는 전체 문화와의 조화 속에서 올바른 문화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TV가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TV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대학’이라는 특수집단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더불어 다양해졌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이나 내용의 충실성은 오히려 떨어져 ‘문화주도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문화를 도리어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학생의 한 사람으로 필자가 접하게 되는 대학문화의 특징적 요소로는 농촌활동을 라든지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 취업 문제와 현실 참여에의 고민, 대학인이라는 특권 의식, 엘리트주의 등등이 있어 충분히 드라마로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대학을 다루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치우치거나 그들의 모습을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식의 걸치레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을 ‘성역화’해서 이를 흥미를 위한 도구로 삼거나 이를 다루는 프로가 오락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무리 대학을 다루는 프로라도 시청자는 전체 국민이다.

그리고 TV의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오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면 대학과 대학문화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대학의 현실에 근접하는 문제와 사건으로 프로를 만들고 흥미를 유발하며 오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대학이라는 사회의 진면목을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대학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인식의 형성은 대학문화를 바르게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대학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자칫 대학문화가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 대학이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올바른 대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대사회의 ‘문화주동자’로서 TV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TV가 다루는 ‘대학’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재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상전, 연대).

3. 얻을 것과 버릴 것

1) 야누스

방송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해로운가 아니면 이로운가 하는 논쟁이 아직까지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방송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습조력자로서의 역할, 인생안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동일시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있다(정원식, 1985 : 4-10).

① 학습조력자로서의 역할

인간의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토록 무력한 존재로 태어난 어린이는 성숙과 발달의 과정을 거쳐 발달하고 마침내 성인이 된다.

그런데 인간형성에 있어서 성숙이라는 선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작다. 인간행동의 대부분은 성숙의 요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매체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 첫번째로 학습동기 형성을 위해서 조력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위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하며, 특정한 학습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물론 이 경우의 학습은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방송매체는 시범적인 기능에 의하여 학습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텔레비전은 시청각매체로서 가장 효과적인 시범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시범을 통해서 특정한 기능의 학습을 조력하기도 하고, 바른 언어나 태도 등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번째로, 방송매체는 새로운 정보의 제공에 의해서 학습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방송매체가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은 정보의 제공이다. 방송매체는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기능에 의한 학습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한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 방송매체는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습한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 인생안내자로서의 역할

청소년이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의 습득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식이외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도 배워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예절과 태도 등도 몸에 익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관한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교과서 이외에, 책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인생의 여러 단면을 익히게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매체는 인생안내자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직업세계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개됨으로써 그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게 된다. 특히 오늘의 직업사회는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더욱 요망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③ 동일시 대상으로서의 역할

청소년들은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과의 동일시함으로써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된다. 사회화과정에서 이른바 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며, 이점에서 그들에게 어떤 모델링이 제시되느냐 하는 것은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일시에 의한 학습의 문제는 지적 학습보다도 태도와 가치관과 같은 비지적 특성의 습득과 관련해서 연구되어 왔다. 이 원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태도와 가치관의 학습에 있어서 그들이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인물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여기서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 학습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 독서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김규편, 1987).

① 신체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의 습관적 시청이 중대한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의 증거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뇌파를 변화시키고 눈의 운동을 마비시키고 손의 운동을 둔화시키고 중추신경계통을 흥분시키고 감각을 과잉자극하고 극초단파의 방사로 질병의 원인이 되고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 비평가 제리멘터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회미한 기분이 되고 정신이 흐릿해지며 어린이들은 특히 멍청한 표정이 된다” 고 말했다.

② 학습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정보가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스크린은 인간을 직접적 경험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리 학습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결과 텔레비전 세계 이전의 어린이들보다 요즘 어린이들은 정보처리 능력이 약해져 보고, 듣고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텔레비전의 습관적 시청은 상상력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것은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전부 그려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시각화 활동의 여지가 없다.

③ 독서에 미치는 영향

해마다 어린이의 독서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으로 어린이는 하루 4시간 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일수록 더 많은 시간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과 더불어 보내는 시간은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보다 길다.

④ 공격성향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의 폭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텔레비전은 모든 가정에 있으며 어린이는 언제든지 원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 또한 영상과 음향의 배합은 더 강한 자극을 유도한다. 또한 인쇄물이 지니고 있는 보호기능이 텔레비전에는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즉 어린이는 과거의 독서능력 부족에 의해서 보호되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어른이 들려줄 경우 어른에 의해서 보호기능이 작용하지만 텔레비전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텔레비전 폭력의 시청은 어린이의 공격적 행위를 조장하며,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적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는 비판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⑤ 건강과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텔레비전 광고는 거의가 장난감과 식품인데 식품광고의 대부분은 어린이가 먹어서는 좋지 않은 식품—영양이 없는, 충치에 걸리기 쉬운 초콜렛, 과자, 사탕—같은 것이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충치, 비만증, 다동성, 과잉긴장에 시달리고 있다.

⑥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은 어린이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며 자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매일 긴 시간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나라〉안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어떤 사회적 교훈을 배우고 있는지 또 그 누적적 경험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은 특정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생략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창출하고 그 결과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2) 예술과 외설

앞에서는 대중매체 중에서도 TV위주로 살펴보았으나 이 부분에서는 TV보다는 비밀스럽게 볼 수 있는 잡지나 비디오Tape 부분에서 외설시비가 더 많이 생기므로 이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인쇄매체와 방송미디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 들여야 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

지에 대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하자면 정보의 영양과다증에 걸려있는 셈인데, 영양이란 부족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해도 탈이 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유독성 정보라도 흡수하게 되면 그 치료가 여간 어렵지 않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란도서와 외설성 잡지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것도 몇년 전에는 숨어서 몰래 팔던 것이 이제는 길가나 서점, 문방구점에서까지 버젓이 내놓고 팔고 있으니 참 변해도 여간 많이 변한게 아니다. 민주화의 물결이 왜 하필 이런데로 흘러 들었는지 모르겠다(구현서, 1988 : 19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따르면 '87년말 출판자율화 당시 2,380종 이었던 것이 '90년 말에는 5,096종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2배 이상 증가 되었다. 이러한 출판자율화에 편승한 일부 대중오락지는 경쟁적으로 외국여인의 나체사진등을 게재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게재중지, 제재건의 등 제재결정을 종전보다 많이 받았다. 대중오락지의 발행추이를 보면, 1980년초에 7종의 대중오락지가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던 중 1987년에는 15종으로, 1990년말 현재 61종으로 4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의 자유와 우리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잡지 문화의 성장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대중오락지와 만화전문지의 경우, 이들 잡지의 내용이 잡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들 잡지가 표방하고 있는 오락적 기능을 아무리 충분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음란 외설적인 표현까지를 오락적 기능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잡지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잡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퇴폐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각종 향락업소와 부조리한 사회 현상, 금전만능주의적인 풍조, 서구화된 성개방의 풍조 등은 물론, 안방에까지 파고든 음란비디오 등 동방예의지국의 타락된 도덕성이 바로 이들 잡지에 반영되고 있다.

전전한 오락은 사람들의 경직된 마음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정신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에 관한 문제도 그 표현방법에 따라서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중지들이 성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이며,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이

다. 그리고 그것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동반하고 있다. 에로스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승화시키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해 왔고, 그러한 표현에 대한 외설시비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그 사회의 도덕적 관념과 성적 표현의 한계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의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더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을 가지고 청소년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한다(구현서, 1988 : 196).

하지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10대의 소년·소녀들이 그러한 비디오 테이프, 또한 만화를 읽고 본다는데 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음란한 내용일수록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퇴폐적인 글, 음란한 사진은 철이 덜든 소년·소녀들의 윤리의식을 파괴하며 성범죄, 재산범죄 등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중매체에 있어 성적 표현의 한계를 살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적 표현의 한계는 이를 법적 한계와 사회윤리적 한계(도덕적 한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① 법적 한계

헌법 제20조와 제21조는 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란한 도서, 잡지 등을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도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음란성의 개념, 특히 음란성과 예술성과의 관계이다. 성문화 내지 성풍속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란성 유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1987년 12월 12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하는 물품으로써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1970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

결, 1982년 2월 9일의 대법원 판결도 음란성의 개념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학자들도 음란성의 정의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거의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도서 또는 잡지에 실린 글이나 사진이 예술성을 지닌 경우에는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도서 또는 잡지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도서 또는 잡지의 전체적 흐름 내지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경우 위와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1975년 12월 9일 「반노」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반노의 13장 내지 14장 기재부분이 음란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나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정상적인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음란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상대적 음란성의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② 사회윤리적 한계

법률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정도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적 표현은 허용될 수 없다. 사회적 유해성 유무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여부이다. 성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성인표준설, 청소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 표준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도서, 잡지의 독자가 일반대중인 경우, 즉 독자층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표준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인에게는 무방한 성적표현이라 할지라도 소년, 소녀들에게 유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성적 표현의 허용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외설잡지의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진잡지에 실린 나체사진의 외설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사진잡지의 주된 독자가 사진작가 등 전문가인 경우에는 그 잡지의 사회적 유해성을 부

정하여야 하며 의학잡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 외설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잡지의 주된 독자가 의사와 의학자인 경우에는 그 잡지의 사회적 유해성을 부정하여야 한다(백형구, 1988 : 217-220).

그러면 이런 외설잡지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음란도서, 외설잡지로 인한 성도덕률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 외설잡지, 음란도서, 불량만화에 의해서 청소년의 도덕성이 날로 파괴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외설잡지, 불량만화, 음란비디오를 이땅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러한 도서, 잡지는 사회의 암적 존재이므로 학교, 가정, 사회 단체가 힘을 합쳐 퇴치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또한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그러한 자체 정화노력과 함께 캠페인에 앞장서야 하며, 경찰, 검찰 등 사직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셋째는 잡지사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외설잡지, 음란도서의 사회적 유해성을 인식하고 ‘벗겨야 잘 팔린다’는 상업주의적 조성을 버려야 한다. 잡지사, 출판사측의 자율적 정화운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 여겨진다.

넷째, 청소년들을 외설잡지, 음란도서, 음란비디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외설잡지, 음란비디오의 단속을 구실로 예술의 자유, 문학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다.

제 3 장 대중매체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1. 두드려야 열림

1)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중매체는 그것을 수용하는 대상이 없이는 성립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수용자와의 상호관계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방송은 수용자(시청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방송은 가장 광범한 폭넓은 영역을 가진 대중미디어인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문화로서 마치 현대사회의 신경조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 즉 방송국과 시청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송수신자의 관계를 넘어서 상호전달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시청자의 반응이 민감하고 반응방법이 용이하며 반응의 속도나 파급효과가 어느 미디어보다도 크다는 이유 이외에도 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자체가 어느 형식이든간에 시청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데에서도 그렇다(호현찬, 1986 : 37).

방송은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경영형태가 국영이든 민영이든 모두 공익에 봉사하는 공공적 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영방송은 그 자체가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으며, 상업방송은 이윤추구가 우선하므로 공익이념을 실현하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간섭과 압력이 방송에 미치는 것을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고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제가 공영방송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방송전파의 주인인 국민에 의한 통제로 운영되는 방송으로서 방송사 조직내에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 설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써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매체접근과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이신복, 1986 : 5-7).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의식은 일종의 자기표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TV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훈련시켰다. 교육수준의 발전, 의식의 고도화에 따라 시청자는 단순한 수신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발언자, 비판자의 심리를 갖게 되었고 방송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려는 충동을 일으켰다(이신복, 1986 : 8-9).

국민이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이하 이신복 1986 : 8-9). 그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참여형태는 방송매체의 소비자로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방송에 참여하는 유형은 단순한 시청행위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 때의 참여형태는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구분된다.

직접참여는 시청자인 국민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방청인으로 참가하여 직접 프로그램에 노출되거나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부터 있어왔던 노래자랑, 가족게임 등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은 모두가 방송국의 필요에 의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들로서 이러한 참여는 미디어가 주도권을 갖고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지 국민이 방송의 주체로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 법적 보장을 받으려면 국민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수동적으로만 정보를 전수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스 미디어에의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매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광장을 매스 미디어의 기능에 의존하고 또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총괄하는 이용권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실행 가능성이 주어진 수용자의 정보추구 능력의 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제한적 이용권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매스 미디어에 공개됨으로써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에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매스 미디어에 게재하여 반론, 변명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원우현, 1984 : 241).

악세스권이 매스 미디어에 투영된 구체적인 활동은 첫째, 비판, 항의, 요구, 불만, 둘째, 의견광고, 셋째, 반론, 넷째, 지면, 프로그램 참가, 운영참가, 편집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악세스 프로그램은 지면, 프로그램 참가에 속한다. 악세스 프로그램은 시청자 쪽에 주도권이 있어야 하며, 특히 내용의 결정권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악세스 프로그램도 참가하지 않는 시청자 층들의 반발, 불만의 의견에 부딪히게 되는 경

우도 있지만,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액세스 프로그램의 개발은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최창섭, 1991 : 322-323).

간접참여는 국민이 방송에 대한 협력자로서, 비판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참여행위이다.

끝으로 공영방송체제하에서 국민이 방송에 참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이 직접 방송운영에 참여하여 방송이 공익에 봉사하도록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기구에 국민의 대표를 참여시켜 다양하고 균형있는 방송을 실시케 함으로써 방송문화라는 무형의 문화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고른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이신복, 1986 : 9).

2) 나도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다

텔레비전과 더불어 자라는 것은 오늘날의 새로운 인간적 조건이다. 이유기가 지나면 어린이는 텔레비전을 젖꼭지와 대치하게 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텔레비전과 붙어서 지내는 이른바 완전한 텔레비전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김규, 1989 : 17).

이러한 현상은 요즈음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방송의 공공성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두텁게 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

각 방송사에서는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경연전을 열어 시청자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 신문사에서 해마다 벌이는 신춘문예가 작가 등용문인 것처럼 방송사가 벌이는 몇몇 공모전이나 경연전도 입상자들에게 명실공히 전문 프로의 자격증을 주고 있다. 게다가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주부·근로자·대학생·노인 등 그 어떤 시청자, 청취자들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행사의 종류와 내용도 다양해졌다. 1991년도 KBS와 MBC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방송위원회, 1991 : 104-109).

(1) KBS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 제5회 KBS 방송문학상

매년 9월 3일 ‘방송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87년부터 실시해 온 중편소설 공모전이다. 역량있는 소설가를 발굴하고 소설문학과 방송을 접목시켜 방송드라마의 질적인 향상과 다양한 소재를 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공모작품 분량은 2백자 원고지 8백매 정도의 중편소설로 그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타 매체에 발표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한다.

－ 제3회 TV드라마 극본공모

창신하고 역량있는 드라마 작가의 발굴을 위해서 KBS가 창사기념사업으로 지난 89년부터 벌인 드라마 공모전이다.

극본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삶과 소재를 다룬 것으로 현대극·사극을 불문하며 방송이 가능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공모부문은 단막극과 미니시리즈가 있는데 단막극은 90분 분량으로 2백자 원고지 1백 80매이며, 미니시리즈는 50분씩 8부작 분량으로 원고지 8백매에 해당한다.

－ 제6회 자녀교육 체험수기

자녀교육의 참다운 방향을 모색하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5년째 계속해 오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체험수기 공모전이다.

－ 제8회 주부 자작시 경연대회

이 대회는 12년째 장수프로그램으로 주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2라디오의 ‘안녕하세요, 황인용·강부자입니다’에서 ‘벗 한 자루에 내 마음 담아’라는 시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것으로 주부들이 직접 자작시를 가지고 나와 사연과 함께 낭송하고 유명 시인들의 비평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참가 과정은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두 편의 자작시를 보내면 여기서 예선을 거쳐 약 열편 정도가 뽑히게 된다. 10월 초순에 있을 본심에서는 예심에 뽑힌 주부들이 직접 참여, 자작시를 낭송하게 되며 시 내용과 낭송실력을 기준으로 장원 1편과 가작 2편이 뽑히게 된다.

— 제5회 전국 소년·소녀 글짓기 대회

전국 국민학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KBS가 금성출판사와 매년 10월 9일 벌이는 행사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꿈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꿈나무들을 발굴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91 신인음악제

음악문화의 발전과 성악인들을 위한 등용문으로 개최되는 콩쿨제이다. 참가자격은 4년제 대학 성악과 졸업 예정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2천년대 우리나라 성악계를 이끌어 갈 주인공을 찾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대회의 대상·우수상 수상자는 방송출현과 함께 국내외 음악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제8회 가족동요 창작경연대회

화목한 가정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요를 통한 어린이들의 건전한 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해마다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는 행사다. 국민학교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면 모두 참가할 자격이 있으며 단, 기성동요가 아닌 순수 창작동요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 제8회 주부가곡제

제2라디오 ‘안녕하세요, 황인용·강부자입니다’ 프로그램이 매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가곡 경연전이다.

— 제12회 노동문화제 음악경연대회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의욕을 높혀 산업계 전체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동부와 함께 KBS에서 매년 개최하는 근로자들의 노래경연대회다.

— 제3회 KBS 창작동요대회

KBS가 제정한 ‘동요의 날’(10월 12일)을 맞아 어린이 정서에 맞고 예술성이 높은 창작동요를 발굴하고 보급하고자 벌이는 대회로 동요를 작곡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회 최우수상 작품이었던 ‘뽕이치기’와 ‘그림 그리고 싶은 날’은 이미 어린이들 사이에 널리 보급, 애창되고 있다.

－ 제5회 KBS 대학가요축제

대학문화와 대중문화의 접목을 시도하고 대학가에 수준 높은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0월 14일 개최되는 대회다. 전국 대학생들의 미발표 창작곡을 대상으로 1차 테이프 심사, 2차 실연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총 16팀은 3박4일간 합숙을 하며 리허설 준비를 하게 된다. 본선에서는 대상·금상·은상·동상 등 7명이 입상하게 된다.

－ 제4회 청소년 창작가요제

만 16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작의욕을 높이고 대중음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행사다. 독창부·중창부·그룹사운드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실시된다. 출전 과정은 미발표된 순수 창작곡으로 일차적으로는 악보 및 테이프 심사를 거치고 다음 실기테스트인 2차 예선을 통과한 팀에 한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 제2차 서울국악 대경연

갈수록 서구화되는 현대인의 의식속에서 자칫 잊혀져 버릴지도 모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새롭게 하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신인 국악인을 발굴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 제16회 전국 관악고적 경연대회

초·중·고등학교 관악고적대를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악고적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마다 벌이는 행사다. 연주 부문과 행진 부문이 있으며 지도교사상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 제9회 한국사진대전

지난 6회까지는 우리의 전통 민속풍물 생활상을 위주로 공모했으나 7회부터는 예술성있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사진애호가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작품은 미발표된 자유작품이다.

－ 제6회 전국 휘호대회

전국의 서예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벌이는 휘호대회는 전통 문화예술을 이어 받고 보다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정신 함양을 위해 벌이는 행사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일반부와 초·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부가 있다.

— 제9회 KBS 바둑 큰잔치

우리나라 바둑 동호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매년 11월에 벌이는 행사다.

아마최강부·노년부·일반부·여성부·유치부·국교생부·중고생부·여학생부·대학생부·단체부·가족부 등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예선과 본선을 거치게 된다.

— 제2회 TV 만화영화 시나리오 공모

우수 창작만화작가를 발굴, 육성하고 건전한 텔레비전 만화 제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만화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이다.

공모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로서 텔레비전 만화로 제작이 가능한 내용이면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2회 비디오 공모전

비디오의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건전한 비디오 문화를 조성하고 시청자들의 참여를 방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아마추어 비디오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애기들을 하나의 주제와 줄거리를 가지고 5분 분량으로 꾸민 ‘자유’ 부문과 생활주변에서 보게되는 진기한 풍경을 담은 1분 이내 분량의 ‘특종’부문 등 2종류로 나뉘어 진다.

(2) MBC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 제2회 MBC 문학상

이 공모전은 MBC에서 다섯차례 실시해 왔던 청소년 문학상을 창사 3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이름을 바꾸고 상금도 2천만원으로 대폭 올려 새롭게 벌이고 있는 행사이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모색하고 참다운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구현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며 수준 높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 제6회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 수기공모

고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바르게 키워온 어머니의 사랑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벌이는 행사가 바로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 수기 공모전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마다 2월초순에 접수

를 마감하는데 평균 응모작품수는 약 9백여 편이다.

— '91 주부백일장

MBC의 대표적인 여성 프로그램인 '여성시대'가 매년 가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은 행사다.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 주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않고 편안하게 그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12회 MBC 강변가요제

젊은이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가요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7, 8월에 벌이는 대학생들의 여름 축제이다. 순수한 창작가요를 갖고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독창·중창·그룹사운드 세 부분 모두 가능하다.

— 제5회 MBC 대학가요제

가요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를 부쩍 늘게 하고 대중가요와 가수층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는 MBC 대학가요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인기 가수로 향하는 최적의 등용문으로 여겨지게 됐다.

— 제11회 대학가곡제

대학생들에게 가곡에 대한 창작의욕을 높이고 대중에게 새로운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해마다 벌이고 있는 창작가곡 경연전이다. 지난 87, 88, 89년 세번은 기존의 대학가곡제를 창작가곡제라고 명칭만 변경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실시했으나 큰 효과가 없어 지난해부터 다시 대학가곡제라는 옛 이름을 찾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제5회 MBC 신인가요제

강변·대학 두 가요제가 대학생들에게 편중된 것을 고려해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실력있는 가수를 발굴하려는 취지로 매년 벌어지고 있는 노래대회이다.

만 18세에서 35세까지의 남녀로 학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제9회 MBC 창작동요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동요를 찾아내고 널리 알린다는 의도로 83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된 행사다. 교단에서 어린이와 함께 숨쉬며 동요를 가르쳐 온 교사들이 직접 곡을 만들고 제자들이 정성껏 노래를 부르는 대회로 국민학교·중·고 교

사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1991 MBC 가족합창제

‘열린 세상 우리는 이웃’ ‘노래세상의 문을 열자’라는 부제를 달고 개최되는 가족합창제는 가족과 이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 제17회 전주 대시습놀이 전국대회

우리 겨레의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출범한 이 대회는 국악인들의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등용문으로 자리잡아 유능하고 참신한 국악인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 전주 지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춤사위를 펼치는 흥겨운 한마당이 되어 전국민이 함께 즐기는 전국대회로 자리잡은 국악대잔치이다.

문화재 기능보유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종목은 판소리명창·농악·기악·무용·민요·시조·가야금 병창·판소리 일반·궁도 등 9가지이다.

— 제9회 전주 대시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전주 대시습놀이 전국대회와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갖고 매년 11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대회이다. 초중고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부문은 판소리부·농악부·가야금 병창부·기악부·무용부 등 다섯 종목이다.

— 제1회 신예작가 미술공모대전

MBC가 창사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벌이게 되는 미술대전이다. 한국미술계에 창조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역량이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하려는 기본취지로 시작하는 이 공모전은 3천만원이라는 높은 상금을 내걸고 있다.

만 20세에서 35세까지의 미술애호가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부문은 한국화·서양화·판화 세 분야로 실시한다.

— 제2회 MBC 구상조각대전

작년부터 실시된 구상조각대전은 기존의 미술제 행사가 그림이나 판화쪽에 치중된 것을 고려해 그 중 소외돼 온 조각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자질있는 신인 조각가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또한 최근 조각의 추세가 구상을 무시하고 추상 조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인체와 사물의 아름다움과 구상성을 극대화시켜 조각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의도로 구상조각에 국한시켰다.

— 제17회 MBC 예쁜엽서전

청소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2월 연례행사로 손꼽히는 예쁜 엽서전은 AM·FM 24개 각 프로그램에 보내온 청취자들의 엽서 가운데 아름다우면서도 창의적인 글과 그림이 담긴 엽서 약 1천 5백여점을 선정, 전시하는 것이다. 역대 수상작품과 유명인사들의 축하엽서와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가들이 그린 DJ커리커처, 외국방송사의 엽서 전시 등 특별 코너도 함께 마련된다.

‘우리는 하이틴’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청소년들의 애청 프로그램의 공개 방송무대도 펼쳐진다.

2. 동아리 활동은 대중매체 참여의 첫걸음

동아리는 같은 또래끼리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운영하는 모임체로서 성원들 고유의 감정과 생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유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동아리활동을 대중매체 참여로 관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스럽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아리활동은 대중매체속에서 왜소해져만 가는 대인매체를 활성화시키고, 동아리는 성원 각자가 대중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학급신문이나 교회의 주보를 만든 사람이 갖는 신문에 대한 시각은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 다르고, 같은 논리로 학급문집, 교지의 편집경험은 상업잡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최근에는 녹음기와 홈 비디오 카메라 등이 대중화되어서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을 라디오와 TV프로그램에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점차 많아져가고 있다.

이처럼 동아리활동은 취미와 관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집단끼리의 다양한 의사전달양식은 장차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개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은 학교생활에 생동감과 즐거움을 불러 일으켜 준다.

1) 자치활동

(1) 스스로 배우기

동아리활동의 특징은 학교에 들어오면 당연적으로 가입되는 학급과는 달리 동일한 취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인 선택적인 집단이란 점이다. 그러므로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역할을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1990(a) : 91-92).

첫째, 동아리활동은 인격 완성의 지름길이다.

둘째, 동아리활동은 인간의 자기소외를 극복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실현하게 한다.

셋째, 건전한 동아리활동은 우리에게 건강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동아리활동은 우리에게 조직 능력과 통솔력, 용기를 길러준다.

다섯째, 동아리활동은 우리에게 실천적 학문을 하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동아리활동은 우리에게 올바른 학교문화, 청년문화를 창출하도록 도와준다.

동아리활동은 학교수업에 비교할 때 동아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배운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은 주눅이 든채로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욕구와 학교의 교과과정에 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약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생활과 학습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자치없이 민주사회는 꽃피울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헌법이나 교육법 등에서도 천명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일부 자치활동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인 동아리활동에 대한 억압이다. 앞에서 인용한 한 책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는 학생회칙에도 학생회의 기능으로 취미 신장과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학교 교칙을 보면 2인 이상의 집회, 또는 단체활동이나 단체조직 등을 규제하고 있다.

둘째,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학칙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칙에 동아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동아리와 학생회의 관계나 동아리활동의 합법적인 활동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셋째, 학생들의 자치활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중 동아리 등록의 결정권이 학교측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적으로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막고있다.

넷째,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신장과 자율적인 활동들을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등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1990(a): 93-94).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활동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어느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화된 고질적인 문제이다. 아래에서 인용한 한 신문에 따르면 1991년 11월을 전후로 하여 전국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축제가 학교측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교사의 지도를 받는 「특별활동반」의 「기능 발표회」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게 「학교지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현실이다.

지난 88년 이후 고등학교 학생회가 대부분 학생 직선을 통해 구성되면서 축제를 자율적으로 계획해 진행하려는 학생들과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학예회’식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대동놀이나 각반별 장기자랑, 타교생 초대행사 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제에 포함시키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학교쪽이 불온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회 직선취지와도 어긋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 구로구 7교에서는 지난달초 학교쪽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준비 차질을 이유로 해마다 열던 축제를 학력고사 이후인 12월로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학생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 학교 학생회는 “한겨울에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축제 폐지와 다름없다”며 곧바로 전교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을중 개최’ 방안에 80

% 가량의 지지를 받았다. 학생회는 이 조사결과를 학교쪽에 제시하며 협상을 벌여 결국 1~2일 이틀동안 대동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가졌다.

서울 영등포구 7교의 경우 학교쪽이 지난달 11일 축제일정을 사진반·보컬그룹 등 12개 특별활동반의 발표행사만으로 제한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전교생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교사들이 급히 떼어내는 소동을 빚었다.

학생들은 이 대자보에서 “가을축제는 몇몇 특별활동반만의 잔치가 아닌 대동놀이나 반별장기자랑대회 등 전교생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에 서는 지난달 26일 학교쪽의 애초 계획대로 축제가 치러지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또다시 교내에 나돌기도 했다. 이 밖에 전남 8교에서는 학생들이 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대동놀이를 준비했으나 집단행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교쪽이 이를 막자 학생들의 항의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서울 관악구 7교, 중랑구 1여교 등 상당수의 학교에서도 대동놀이 행사 개최여부를 놓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같은 축제를 둘러싼 학생과 학생당국간의 마찰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소 학교 교사의 지도를 받는 특별활동반의 기능발표회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게 학교지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 선동을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동놀이 등 집단행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장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한 고교의 총학생회장은 “많은 학교가 퇴폐·탈선 가능성을 안고있는 디스코파티나 록그룹연주회 행사는 용인하면서, 대동놀이 등 학생회 주도의 대규모 행사 개최를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손봉호 교수(사회교육)는 “시국관련 시위로 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생회의 자발적인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시대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는 한 사례”라며 “청소년이란 특성에 비취 무제한적 자유를 줄 수는 없겠지만 민주시민이 되기위한 훈련과정으로서 고교생의 자치활동 폭을 최대한 넓혀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1991. 11. 3).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상하는 체벌이 “사랑의 때”란 아름다운 이름하에 정당화되고, 주기적인 소지품 검사가 “학생지도”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학교사회에서 한차례 “행사”에 불과한 축제에서 동아리활동을 규제한 것 짚어야 교육상 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치활동 보장없이 학교는 민주화될 수 없고, 이

러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이 민주시민이 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자라면 회칙이나 교칙에 동아리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권을 자주적인 학생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동아리연합회 등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 사례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988년도 직선제 학생회에서 학내동아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후로 동아리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전주 ○○고등학교는 1988년도 직선제 2대 학생회에서 학내 동아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지도교사 1인과 10인 이상의 동아리활동 신청 학생이 있을 경우, 모든 동아리의 조직이 가능하고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신고제로 바뀐 지 채 1년도 되지않아 ○○고에는 20개가 넘는 각종 동아리가 생겨났고 1990년 초 겨울방학을 이용한 동아리연합발표회 당시엔 48개에 이르는 동아리들이 활동하였다.

청심, SEA STAR 등의 친목동아리, 휘몰이·돌무새 등의 풍물패, 한빛·베텔 등의 중창단, 기타 산악회, 연극반, 기타모임, 브레이크 댄스, 보컬, 농구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89년 현재 ‘즐거운 학교 만들기’라는 1년 동안의 목표 아래 1980년대 초부터 없어졌던 가을체육대회가 부활되었고 동아리들 중심의 동아리발표회를 갖고 있는데, 1989년 하반기부터 동아리 연합을 조직하여 동아리활동과 학생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1990(a) : 96).

2) 참여와 여론

민주주의는 참여에 의해서 발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학교사회는 동원에 길드려져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학급회의는 진지한 토론없이 회의록 작성을 위한 회의에 그치거나 심지어는 자율학습시간으로 대체되고, 특별활동시간은 시간표에는 매주 짜여져 있지만 특별한 날에만 가끔씩 하는 시간으로 변해 버렸다.

심지어는 “학급신문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학생”이 있다는 기사거리가 “대중매체”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6월29일자 〈한겨레신문〉 14면에 실렸던 ‘동네방네－학급신문 때문에 쫓겨나는 학생’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데 관심갖지 말고 공부나 해라.”

“저희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해 주세요.”

서울 구로구 ○○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간의 대화이다. 뭔가 뒤흔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깨우쳐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의 교육은 오히려 그 반대인 듯하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고교생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철저히 말살되고, 나아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퇴학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런 입시 위주와 징계 만능의 교육풍토 아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참된 사랑과 존경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좋은 교육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그들의 고민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한겨레신문, 1991. 7. 4).

모든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인용한 선생님들과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월성과 계승을 가르치려는 교사들도 많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선생님들이 수난을 받고, 교육현장에서 쫓겨나는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문화의 우월성과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선생님들이 막상 학생들이 그런 가르침을 실행하려 하자 가로막고 나섰다.

지난주 ‘교사 풍물패 정기 발표회’에 이어 안양의 세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연합 풍물공연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이를 안 학교쪽은 사전승인없는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불러 공연을 강행할 경우 유기정학시키겠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학생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공연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고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침 조회 시간을 빌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매도하고, 몇몇 선생님들에게 듣기 거북한 지적을 했으며, 몇몇 학생들은 부모님까지 모셔오고 학생과를 들락거리며 진술서를 써야 했다.

우리 것을 찾겠다는 학생들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한

겨레신문, 1991. 11. 13).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장은 아직 좁지만, 이제 여론은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녀의 학급문집에 글을 두고 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학급문집이 아이들에게 먼 훗날까지 추억으로 간직되길 축원하고 있다.

국민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학급문집을 만드는데 엄마들의 글도 함께 실는다고 했다. 그리고선 엄마가 딸(아들)○○에게 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써달라며 종이와 연필을 내민다. 막상 딸에게 할 말을 글로 표현하자니 잘 되지를 않아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 글씨 예쁘게 써야해요. 우리반 아이들이 다 볼건데』 하면서 저도 잔뜩 신경을 쓰는 눈치다.

우선 「사랑하는 딸 예원에게」라고 쓴 후 엄마는 예원의 이런 점을 좋아하고 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등등 온통 엄마의 부탁과 바람을 모두 쏟아놓으려니 처음의 망설임과는 다르게 끝이 없다.

다쓴후 딸아이에게 심사(?)겸 읽어 보라고 보여줬더니 생긋이 웃는다.

평소에 늘 잔소리처럼 할 때는 입이 뿔로통해지곤했었는데, 편지로 쓰니 느낌이 다른가 보다. 한 학년을 마치면 선생님과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글 모음집이 아이들에게 먼 훗날까지 예쁜 추억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마음이다(조선일보, 1991. 12. 13).

또한 한 방송인은 방송 페스티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이 주제가 참신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방송에 대한 관심과 솜씨가 대단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하는 일은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일이다.

MBC 라디오는 작년에 MBC 창사기념으로 〈고교방송 페스티벌〉을 열었었다. 청소년들의 방송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직접 참가하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전문 방송인력의 저변확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예상보다 많은 작품이 들어와 우리 제작팀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방송반이 있는 학교는 방송반이 힘을 합쳐 참가했고, 어떤 학생은 혼자 자체제작을 해 보냈는데 기상천외한 주제가 있는가 하면 참가한 작품 모두가 순수하고 구김살이 없는 것이었다. 우리 MBC

라디오 팀 PD들은 한국방송의 앞날이 밝음을 느꼈고 우리 기성인이 분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방송에 대한 관심과 솜씨가 대단했다.

최우수 작품은 양정고교 방송반에서 낸 〈우리에게 내일은 있는가?〉라는 구성프로그램이었다. 임시와 기성세대의 몰이해를 비판하긴 했으나 그들이 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하고 부정하며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끝내는 긍정으로 가려는 강한 열망이 담겨있었다.

이 최우수 작품은 〈우리는 하이틴〉이라는 프로그램에 내보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금년에도 〈고교방송 페스티벌〉 2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방송은 항상 가능성과 현실공정 속에서 꿈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십대들에게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여지를 주는 것이 방송의 한 의무이기도 하다. 방송을 아끼며 즐겨듣는 청소년들이 있는 한 우리 방송인들의 어깨는 무겁고 또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주변인의 길, 1991. 9. 23).

3. 학교가 도와주어야 할 일

1) 참교육

(1) 19C교실에서 할 수 있는 21C교육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 흔히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한탄의 소리가 높다.

20여평의 교실에 60여명의 학생이 북적거리는 콩나물교실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없는 찜통같은 교실

겨울에는 여전히 조개탄 난로

1백m 달리기조차 할 수 없는 운동장

이와 같은 교육환경은 30년전의 학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학생들의 체격에 책걸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책걸상에 학생들이 몸을 맞춰야 한다. 교육환경·교육제도가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한다기보다 학생을 얹매어 놓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현실—교육의 정치화·사회화 때문에 참교육의 길이 막혀왔다(중앙일보 특별취재반, 1991 : 11

~16).

교육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소리가 높다. 민주교육의 목표는 민주사회를 창조해 갈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자치회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국민학교고 중고등학교고 자치회란 것이 이름뿐이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학급의 삶, 학교의 삶을 아이들 스스로 이끌어가고 창조해 가도록 해야 한다(이오덕, 1990 : 107).

민주교육을 위해서는 자치활동과 더불어 아이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하도록 가르치는 표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쌓인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어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개인의 사정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럴 때는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나 생각이 어느 기회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의 수단이 어떤 내부나 외부의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막혀버려서 다른 표현의 수단을 빌려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어느 때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면 병이 들고 만다. 표현이 갖는 참된 교육의 뜻은 ‘기능의 체득’이니 ‘정서도야’니 하는 따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정서를 순화한다’고 해서 손재주나 말재주나 글재주의 잔피를 익히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그런 재주놀음은 진정한 자기표현의 길을 막아버린다. 표현교육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재능을 뽐쳐주고 사랑다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같이 점수따기 경쟁으로 무척 대고 머리속에 마음속에 온갖 쓸모없는 것을 집어넣고 쑤셔넣기만 하는 형편에서는 아이들을 살리는 가장 귀중한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이오덕, 1990 : 93).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한 국가와 사회가 그런 것같이, 학교와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없이 학급사회 학교사회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아이들을 해방하는 표현교육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인 동시에 그 사회와 국가 전체를 살리는 기본이요 원천이 된다. 참교육의 길을 찾아가자면 억눌린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정서와 창조적 재능이 온갖 형태로 피어나도록 하는 표현 중심의 교육이 모든 교육에 앞서야 한다(이오덕, 1990 : 107).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쓰고 싶은 것을 쓰고, 나타내고 싶은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표현교육이야말로 우리의 19세기 교실에서 할 수 있는 21세기 교육이 아닌가 한다.

(2) 기획에서 출판까지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담당자는 성적이나 품행을 너무 중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곧 직접 경험과 이것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직접 경험의 확대는 몸이나 신체사용을 촉진하고 감각을 균형있게 발달시킨다(김규, 1989 : 163).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발표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낭독·판서·회람·인쇄배부·문집·신문·잡지 투고 등이 있다.

낭독-낭독은 쓴 아이 자신이 하는 것과 교사가 읽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기가 쓴 글을 자신이 낭독하도록 하면 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쓸 때나 쓰고 난 다음의 고칠 때, 여러가지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하면 글을 연설조로 웅변 원고같이 쓰게 될 우려가 있다. 요즘에는 방송시설이 어느 학교든지 다 되어 있으니 방송 기재를 이용해서 낭독을 하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발표하는 아이들 편에서 보면 극히 제한된 일부 아이들밖에 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판서-판서는 짧은 글로 일제 지도를 할 때는 매우 편리하지만, 긴 글은 할 수 없다. 판서는 일반적인 글의 발표보다는 짧은 글의 감상 비평에 적합한 방법이다.

인쇄 배부-이것은 판서의 단점을 잘 보완해 준다. 인쇄 배부는 발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어느 글이고 다 인쇄해서 나눠 줄 수는 없다.

회람-원고 그대로 돌려 보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나 그만큼 관심과 흥미를 끌기 힘들다고 하겠다.

신문·잡지 투고-이것은 투고 작품 선자들의 작품을 보는 안목이 무엇보다도 문제된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잡지에 실리는 아동 작품은 교사들의 지나친 침착과 개작으로 불순하게 되었거나, 빈말만 꾸며 만드는 지도를 받아 얄은 꾀로 씌여진 것이 아니면 어른들의 상업적 의도를 선전하는 재주를 부린 것이 많다.

문집-아이들의 글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문집은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둘째는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힘과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며, 셋째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을 이해시키고, 넷째는

아이들에게 가장 친근한 읽을 거리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자주성과 창의성을 복돋워 준다(이오덕, 1989 : 172-173).

이상의 발표 방법 중에서도 신문이나 문집을 인쇄배부하는 방법은 기획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신문이나 문집을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편집하고 교정보고 출판하는 제작과정은 장차 대중매체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훈련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신문이나 문집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복돋아줄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이 글쓰기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힘써야 한다. 중요성이 인식된 다음에는 자치회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신문이나 문집의 발행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문이나 문집의 형태와 내용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발행 후에는 전체적인 평가회나 편집회의를 통해 창조적으로 구성해 나간다.

이러한 제작과정에는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스스로 만들어보고, 될 수 있는 한 전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어른의 기준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면서 느린 속도라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주어야 한다(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1989 : 193).

2) 텃밭 가꾸기

(1) 학급활동

동아리활동이 학생회활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에 비유된다면 학급활동은 학생회조직을 밑으로부터 떠받쳐주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1990(b) : 89). 학급은 학교생활의 기본 단위로서 교사가 가장 일상적으로 친밀하게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급이므로 학급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 구태의연한 학급운영을 벗어나 학생과 담임이 합심하여 민주적, 자율적, 공동체적 학급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은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1990(a) : 31).

이와 같이 학교생활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자치활동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중매체의 텃밭으로서의 학급활동은 학급신문 만들기과 학

급문집 만들기를 들 수 있다.

－ 학급신문

학급신문을 제작해 보는 것은 신문 제작과정의 이해에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문 제작을 통해 자치활동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율적인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민학교 어느 학생이 친구집으로 종이문지를 가지고 간다. 학급신문을 만들 재료와 숙제할 책과 숙제장을.

학급신문 내용은 수수께끼, 오늘의 한자공부, 동시, 7년후에 자기가 하고 있을 일, 숙제와 사춘기 라는 만화 등.

아직 옳고 그름은 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고픈 마음으로 학급신문을 채워나가며 친구의 작은 방에서 땀을 흘린다.

그 국민학생보다 훨씬 큰 고2의 나의 모습은 학급신문을 만들지 못한다. 준비하고 땀 흘리지도 않는다.

표현하고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동동이 들고 쓰잘데 없는 일한다 야단칠 담임을 떠올리며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은 고개를 숙여버린다(푸른나무이야기모임, 1988(b) : 16).

박 명균(고2)이 쓴 이 글은 학급신문이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장 기초적인 자치활동인 학급신문의 제작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전 운혁 (고3)의 「우리가 참주인이 되는 학교를 그리며」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저번에 학급회의 시간, 우리는 정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나는 학급신문 만드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 교실에서 작은 학급신문 이나마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계속있었고 결국 표결에 붙여 찬성 42표 반대2표 기권3표로 학급신문 만드는 것이 결정되어 구체적인 계획이 토의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것은 안된다”고 하였다. “왜 안돼요. 선생님, 우리들의 의견을 아무 이유없이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요.”하고 어느 친구가 물었다. “학교 시책으로 그것은 안 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너희는 지금 공부할 때이지 그런 것이나 신경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하고 의견을 묵살했다. 나는 “우리들의 의견을 한 마디로 묵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말했다. 선생님은 얼굴이 달아올라 나보고 교무실로 내려오라 하고는 교무실로 갔다. 우리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였고 내려가니 선생님은 나를 본 채 만체하고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와”하고는 선생님 일만 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의 매(?)’를 맞았다.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너 혼자 잘난 체 마라 이 녀석아”하고는 다시 한번 학급신문은 안된다고 하고는 나갔다. 나는 울고 싶었다. 맞은 것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그것이 억울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내 옆으로 모여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었고, 나는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푸른나무이야기모임, 1988(a) : 56).

학급신문에는 학급 전체 학생의 알찬 삶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학급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 원칙은 첫째, 학급 학생들의 살아온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 둘째, 일반 신문이나 잡지와는 다른 학생들 자신에게 알맞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 비용은 학생들 스스로 용돈을 절약해 마련해야 한다. 넷째, 신문 발행 후 평가회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신문발행을 위해 글쓰기나 그 외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충실한 만남과 학급문화의 터전이 이루어진 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신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1989 : 189-190).

— 학급문집

문집은 1년 동안의 학급생활이 총체적으로 표현된 학급 문화의 결정체이다. 서로의 의견이 활발히 교류된 학급회, 다 함께 열심히 일한 청소시간, 일년동안 읽을 거리를 제공한 게시판, 모듬일기 그리고 담임과 나눈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스미고 녹아들어 글이 되고 이것을 모아 만든 것이 학급문집이다. 살아있는 학급은 살아있는 글이 나오고 죽어있는 학급은 죽은 글이 나온다. 언어가 트여있는 교실—자기 생각을 부끄럼없이 소신껏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활의 열쇠임은 물론이다(이상석, 1988 : 266).

문집은 학교 교육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사를 위해 만드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아이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오덕, 1989 : 174).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집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학급 전체 학생의 글이 모두 실려야 한다. 특별히 뽑힌 몇몇 학생들만의 글로 만들어진 것은 그 속에 실리지 않은 학생에겐 별다

른 의미가 없다. 개개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조성을 발휘한 공동작품도 문집의 한 구성부분이 되어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1990(a) : 89).

둘째, 학급안의 여러가지 삶의 문제가 솔직하게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학급 학생들의 노력이 나타난 문집, 그래서 민주 학급사회를 창조하는 과정이 엿보이는 문집이어야 한다(이오덕, 1990 : 79). 다음 교사들이 주고받은 편지글에는 이러한 문집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보내주신 「물또래」를 잘 받아 읽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나마 따뜻함을 느끼며,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그토록 절실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랑도, 의미도 가치 없음을 또한 느꼈 습니다. 쪽마다 살아 숨쉬는 건강한 목소리들은 그대로 선생님의 숨결이 배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회 때마다 몇 편씩 읽어주니 “글이 아주 쉬워 좋아요” “우리 애기하고 비슷하네요” 등등 환한 어조로 귀담아들 듣더군요.

아직도 저희 중학생들은 국민학교의 그릇된 글쓰기 교육으로 꾸미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글을 흉내내려 하고, 일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예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여러 얘기보다 이런 「물또래」를 보고,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1989 : 102~103).

셋째, 아이들을 위한 문집은 훌륭한 학습의 자취가 나타나 있고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문집이어야 한다(이오덕, 1990 : 79).

이러한 학급문집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은 첫째, 학생들의 글을 무작정 받아 모을 것이 아니라,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자기 생각을 쓰게 하거나 분단별 토의를 거친 의견을 종합 정리하게 한다. 둘째, 한 해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글을 쓰게한다. 셋째, 모아진 글을 선정할 때는 여러가지 생각이 골고루 드러나도록 배려한다. 다양한 색깔의 얘기를 모아놓고 보면 그것이 어우러져 한 생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글씨는 개개인의 자필로 하되, 편집용 원고지에 또박또박 쓰게 한다. 삽화용 그림을 따로 그려 적당한 위치에 확대 또는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이상석, 1988 : 266-268).

교육의 기본 단위가 되는 학급은 교실이라는 공간을 얻어 민주교육을 실천한다. 민주 교육은 민주교실의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비로소 이뤄가는 것이고, 민주교실 문화의 창조는 학급문집을 통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이오덕, 1990 :

(2)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의하면 특별활동은 학급활동과 클럽활동 모두를 포괄한다. 그러나 학급활동과 학교외 클럽활동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교내 클럽활동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활동은 교내 클럽활동이라고 해야 정확하지만 학교에서 주로 특별활동이라 통용되므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활동이라고 했다.

교내 특별활동반 중에서 대중매체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영상반, 방송반, 편집부를 들 수 있다.

－ 영상반

영상반은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삶과 정서를 표현, 전달하고 시각 매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삶의 폭을 넓히며 시각매체의 나타난 왜곡된 문화현상을 비판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시각 매체는 만화, 사진, 영화, 비디오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표현기법도 날로 심화된다. 또한 영상매체는 한창 호기심이 강하고 창작욕구가 왕성한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다. 즉, 글이나 음악이 주는 효과와는 또 다른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표현, 압축적인 효과와 과학과 예술이 함께 하는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일부 시각매체와 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작은 물론 감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은 학교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운영방법을 잘 고려하여 조절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0 : 227).

우선 영상반에서는 사진, 그림, 만화, 영화, TV, 비디오, 슬라이드 등 영상매체를 실제 감상하고 매체별 특성을 익히며, 또한 여러 영상매체를 통해 왜곡된 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기초적 영상 훈련과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영상표현 기능을 익히고 영상매체에 청소년들의 문제의식과 그들의 삶을 담아 주체적인 문화창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슬라이드제작 훈련경험은 청소년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개념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 경험 방법으로 슬라이드 제작을 권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슬라이드

는 영화나 비디오에 비해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둘째, 화면을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셋째, 대량 복사가 가능하다. 넷째, 촬영 이후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처리기법으로 표현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다섯째, 완성작품을 재수정하기가 비교적 쉽다. 여섯째, 정사진(still)으로 이루어짐으로 한 컷(cut)의 화면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이미지와 정보전달에 있어 관객이 그것을 수용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일곱째, 자료보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0 : 272).

슬라이드 제작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학습경험을 제시한다. ① 스토리 보드(story board)의 작성 : 6~8개 장면의 스토리보드를 통해 이야기의 시각화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장면은 프레임을 그려 넣은 종이를 준비하여 그리게 한다. ② 35밀리 슬라이드의 수동제작 : 슬라이드를 그리게 하여 미운트를 하여 슬라이드 투사기로 영사해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간단한 이야기의 영상적 창의력을 길러준다. ③ 사진 스토리보드 :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 그룹별로 8개의 기본 장면을 설정케 한다. 장면이 결정되면 각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순서대로 배열한다(최창섭, 1985 : 105-106).

또한 아주 짧은 슈퍼 8밀리 영화를 제작해 볼 수도 있다. 주제를 설정하고 순서를 계획한 다음 지도교사가 카메라로 촬영하고 학생들이 순서에 맞추어 연기하도록 한다. 이같은 연기와 구두 표현작업은 영화에 대한 경험을 제시한다(최창섭, 1985 : 105-106). 일정기간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영화를 제작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가정용 비디오촬영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므로 비디오제작을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영상반 활동은 청소년들이 영상매체의 특성을 알고 표현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며, 영상매체에 나타난 왜곡된 문화현상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영상매체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0 : 228).

－ 방송반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송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송반은 대중매체와 관련된 특별활동 중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방송이란 특정상황에서 방송국이라는 조직이 보도, 논평, 오락제공, 광고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현상에 대한 정보 및 의견과 교양, 음악, 연예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매체를 사용하여 공중 즉 불투명 다수에게 전달하여, 의도한 목

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최창섭, 1991 : 26-27).

그러나 교내방송은 방송반이라는 특별활동반을 중심으로 하여 교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방송내용은 약간의 정보 전달과 휴식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1년에 한번 실시하는 방송제에서는 그들이 담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방송반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전에 우선 방송국 견학을 통해 현장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방송국 견학을 통해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방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방송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알 수 있다(김수연, 1990 : 145). 그 다음 과정에서는 테이프 녹음기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한다. 어느정도 방송 훈련과정을 거친 후에는 직접 교내 방송에 참여하도록 한다.

－ 편집부

편집부는 보통 학생회 산하기구로서 학기초에 편집위원을 모집해 구성된다. 편집부에서는 1년에 한번 교지를 발간하는 일을 한다.

교지는 학교 교육활동의 결과물이다. 교육활동에는 교사·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며 그 결과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즉 교사·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인 것이며, 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지들은 관료적이고 형식적이며 천편일률적으로 편집되어 있다.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사진이 앞머리를 차지하고 그들의 상투적인 글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지가 이사장의 얼굴이나 학교장의 입신출세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선전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면 당연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훈련의 도장으로서의 학교의 모습의 허울뿐이고 복종의 의무만이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편집증기’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미래사, 1988 : 32-33).

“이게 아난데…….”

늦은 밤, 일을 마치고 편집실을 나오던 후배의 말이다.

그래, 처음 편집위원 응시를 하며 머리속에 그려 보았던 교지는 정말 이런 것은 아니었다. 지면이 제한된 신문, 통제가 심한 방송을 대신해서 학생들이 평소 말하고 싶었던 것을 여유있게 담아내는 그릇이었으면 했다. 서투르나마 자신의 논리와 지식을 풀어내는

토론장이었으면 했다. 선생님들과 학생이 장교와 졸병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자유롭게, 인생의 선후배로서 정겹게 마음을 터 놓는 만남의 장소이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지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못 교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저러지 말아야지’하고 마음 먹었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무엇이 학교마다의 수많은 교지들을 이토록 재미없게 만드는가?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편집부 학생들에게 완전한 편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품 하나 선정하는 데도, 특집 기사를 기획하는 데 지도 선생님들을 포함한 수많은 선생님들의 손을 거치고,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 우리의 예를 들면, 현재 편집부 지도 선생님은 세 분이지만 실제로 훨씬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쏟고 계신다.

‘이게 우리 교지냐, 선생님들 교지냐’ 하는 말까지 나온다. 우린 이제 편집위원이라기 보다는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편집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니 교지에 학생들의 정서가 그대로 전달되기 힘들고,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너무나 동떨어진 교지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미래사,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미래사, 1988, p.28).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지의 편집계획, 편집과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학생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를 적극 도와주어야 할 교사도 입시경쟁과 제반 잡무에 시달려 새로운 제안이나 학생의 자율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대신, 기존 교지의 편집 및 체제를 답습하여 능률위주로 일을 하게 되고, 편집위원인 학생은 심부름 정도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미래사, 1988 : 34).

교지가 진정 학생의 것이고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내용은 학생의 발전과 참된 성장을 위해 채워져야 하고, 편집부도 그들의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율적인 편집부 운영을 통해 편집위원인 학생들은 대중매체의 기획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제 4 장 대중매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려고 한다면 본서의 모두에서 밝힌대로 제3의 선행이라기보다는 아마 제1의 선행이라고 표현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매체의 심의나 통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제작자를 제외한 소수외에는 대중매체의 심의와 통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방송위원회, 1989). 문제는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닌 타율적 규제에 이르게 됨으로 분명한 기준과 현명한 방법 그리고 국민적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매체를 접하게 되는 개인적 가치기준이 상이함은 물론이고 보수적 입장과 비판적 시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대중매체에 대한 심의와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전 국민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대중매체의 감시자가 되어 지적해주고 비판해주는 사회운동의 활성화이다.

둘째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활용을 들 수 있다.

1. 감시활동은 통제의 시작

그동안 TV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일반대중들도 많은 논의를 해왔다. TV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증까지도 나오게 되었지만(최선렬, 1985 : 103),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 TV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그냥 제거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매체를 우리들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하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에 대한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미디어 수용자들은 전통적인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 역할로 태도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고 결정할 권리도 행사할

줄 아는 현명한 시청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TV수용자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권을 사용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형태 중의 하나는 보호의 대상인 시청자 스스로의 통제에 의한 것이다. 거기에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다.

1) 자기보호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미디어로부터 일방적인 정보공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시청행위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시청자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TV를 예로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비판적 TV 시청에 필요한 능력을 5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신의 시청행위를 관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둘째는 TV프로그램의 현실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셋째는 TV내용의 설득적인 논쟁을 알아내고 이에 반론을 펴는 능력, 넷째는 자기자신의 생활에서 TV효과를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 다섯째는 TV를 가족간의 대화촉진기구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최선렬, 1985 : 111).

Charr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TV를 비롯한 매스 미디어 수용자들은 그것의 공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매스 미디어로 하여금 공해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용자 자신들도 스스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용자 자신들도 매스 미디어를 올바르게 선용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차배근, 1986 : 29).

방송국, 시청자, 정부, 광고주 이 네가지 요소가 방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방송국과 시청자만이 서로 직결되는 요소이지 정부와 광고주는 간접이나 이용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 도식에서는 없어도 가능한 존재들이다.

또 방송국과 시청자와 정부를 삼각형으로 표시한다면 시청자는 마땅히 정점에 가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감시기관으로서의 정부나 광고시간 구매자로서의 광고주의 이익이 주인인 시청자를 능가할 때가 많으며 방송국도 말없는 주인보다는 감독단체나 지불처에 보다 밀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시청자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방송전파의 소유주는 바로 국민인 시청자이며 방송을 가능케 하는 주체가 자기들이라는 주인의식이 철저해야 할 것 같다. 자기 것을 지키는 권리, 이용하는 권리, 보호하고 보호받을 권리, 봉사받을 권리 등 여러가지가 바로 이 주인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로 방송은 하나의 도구나 제도이며 이 도구는 문명의 이기도 되고 흉기도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도 실험중에 있는 미완성물이나 그 영향은 어떤 매체 보다도 강하므로 이것은 크게 문제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방송매체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방송 현상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며 시청자인 자기와 방송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켜 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끝내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셋째는 자기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이다. 방송을 보다 가치있게 이용하겠다고 결심한 시청자는 우선 자기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초적으로는 방송매체의 본질과 특성에 서부터 제도나 운영, 영향력과 바람직한 방향까지 자기나름대로의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적부터 매체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을 생활속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의지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선진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청자 의식 교육, 프로그램 선택교육, 시청태도교육, 방송국에 대한 압력이나 항의, 불미스러운 광고물에 대한 항의운동, 편파보도에 평형적 접근과 반론권 주장, 폭력물과 섹스물에 대한 규제 등 많은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방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송국이나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비해 시청자의 권리는 소홀히 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넷째는 방송수요에 대한 자기훈련이다.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물가치적으로 감정적, 피상적,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있는 것을 찾아 비판적으로 다양하게 받아들여려는 선택의 엄격성과 습관형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비판적이고 지적인 수용자에게 저질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방송국이 깨닫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엄한 선택기준과 이를 고수하는 시청자의 자기훈련이다.

다섯째는 압력단체의 형성과 이용이다. 이 내용은 사회운동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부모의 노력

조작이 비교적 힘든 정보처리매체인 컴퓨터의 경우, 컴퓨터해독물이란 개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TV문자해독이란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TV로부터의 정보처리과정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TV라는 매체는 표현체계(representational system)로 독특한 표현양식을 갖고 있다(최선렬, 1985 : 102). 메시지의 전달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양식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의 표현체계에는 독특한 기호는 물론이고 일종의 문법도 있고, 의미론, 구문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TV의 표현체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계속된 접촉으로 표현양식에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없이 TV가 표현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능력이 덜 발달된 아동들이 TV에 표현된 세계를 실제 세계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란 어려운 것이다. 소위 TV가 표현한 초인들의 세계를 재현하고자 어린이들이 육교나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희생된 사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준다.

미국에서는 근래에 와서 TV로부터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이 아동들을 TV의 악영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켜 왔다는 반성과 함께 TV매체 자체에 대한 이해와 TV와 시청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하는 운동이 학계와 일반 대중들 사이에 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TAT(Televison Awareness Train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규모로나마 「TV바로보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단체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TV바로보기」운동이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텔레비전 시청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가정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무엇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며 텔레비전은 이러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텔레비전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김규, 1987 : 140).

- ① 현실 경험을 확대할 것
- ② 시청 시간을 제한할 것
- ③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할 것
- ④ 교육수단으로 텔레비전을 이용할 것
- 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에 주의할 것
- ⑥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의 말을 들을 것
- ⑦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교환할 것
- ⑧ 텔레비전에 관한 부모의 방침을 학교에 전달할 것

3) 사회운동

(1) 시청자 운동의 필요성

현대에 와서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즉, 수용자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수용자는 같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며, 이는 과거 송신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자는 예전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나 견해에 대해서 비판이나 반발을 보이면서 거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을 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수용자가 영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거대한 조직체인 매스 미디어에 개별적으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매스 미디어는 만족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수용자의 불만을 무시할 수 있으나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시민단체에 의한 항의는 무시할 수 없다(한진만, 1986 : 49).

한편 지각과 양식있는 시민들과 판별력을 갖춘 매체수용자들은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언론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노골적인 불신과 비판을 발설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적어도 근대적 대중매체체계를 갖춘 나라들에 있어서는 보편화되다시피 하였다(김지운, 1986 : 40).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 특히 언론매체와 텔레비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급기야는 KBS시청료불납운동까지 확산·발전되었다. 이는 과거와 같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참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한진만, 1986 : 50).

텔레비전 시청자운동의 근거는 크게 소비자 운동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강조의 두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운동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면 이를 문제시하여 여론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자 운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았을 때 만약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면 시청자라는 소비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청자는 당연히 이런 내용을 거부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내용이 건전치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불량한 내용의 거부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둘째, 시청자운동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방송매체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의 소유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시청자는 공중의 전파를 이용한 방송인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즐길 권리를 갖는 한편 명백히 나쁜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어떤 방송으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권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속해있느냐에 따라 시청자가 보호받는 정도나 방법이 달라진다. 여기에는 통제권이 정부나 국가에 속해있는 경우와 방송사 자체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와 시청자 스스로의 통제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보호의 대상인 시청자 스스로에 의한 통제인데 텔레비전이 사회의 공유물로써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 운동을 통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청자의 의견이나 반응이 프로그램내용이나 방송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의 의사가 집결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이 필요한데 이런 단체나 모임

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청자운동인 것이다. 시청자 운동은 시청자가 지역사회에서 선의의 압력단체를 구성하여 방송사에 대해 조언 또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이신복, 1986).

(2) 우리나라의 시청자 운동

우리나라의 시청자 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여러 단체에서 토론회, 세미나, 모니터링 조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비교적 활발한 시청자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에 관계된 여러가지 사업중의 하나로 시청자운동인 텔레비전 모니터링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바람직한 현대 여성상 부각을 위해 텔레비전에 나타난 왜곡된 여성상을 모니터링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하는데 있다.

나. YMCA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청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텔레비전의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텔레비전 바로보기운동(TAT)」을 전개하고 이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부 텔레비전모니터요원을 모집, 양성하여 어머니들에게 시청자로서 프로그램 선별능력을 함양시키고 유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정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의 하나로 스포츠신문 건강성 회복 축구 캠페인을 벌이며 스포츠신문 건전화를 위한 활동보고 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 스포츠신문 음란 폭력 공동대책위원회

스포츠신문들의 ‘도색 저널리즘’ 근절을 내걸고 문제를 제기해온 공동대책위원회로 강력한 독자운동 단체이다.

공대위는 지난 1년 활동보고 및 운동방향 협의를 통해 〈일간스포츠〉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등이 근본적인 지면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음란문서판매죄와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폭력물의 제작 및 판매죄로 고발할 것,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광고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것, 공대위 가맹기관의 회원을 중심으로 스포츠신문들의 모지인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과 이들 발행사에서 낸 잡지 안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공대위 가맹기관인 청소년선교회 그레이트비전대학연합회와 공동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라. 텔레비전 모니터 활동을 벌이는 여러 단체들

텔레비전 모니터 활동을 벌이는 주요 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최근 텔레비전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러 단체들

단체명	대표자및활동인원	모임구성	운영방법	결과처리	모집방법및기타
서울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 (732-8291)	이승정 간사 20~30명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과 '좋은 어린이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으로 나누어 활동	분과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 1회 토론	보고서로 작성하여 방송사·언론기관·언론사에 배포하여 시정을 촉구	1년 2회씩 실시하는 TV모니터 요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링' (793-5196)	오혜란 간사 20~30명	전체 모여 모니터 결과를 토론	개별적으로 모니터를 한 후 월2회 토론	보고서로 작성하여 방송사·언론사·유관기관에 배포. 기관지 '월간여성'의 고정란에 게재	방송에 나타난 왜곡된 여성상을 중심으로 모니터
한국여성민우회 'TV모니터팀' (313-1060)	유소림 간사 5인	먼저 소모임 훈련과정을 마친 민우회 회원으로 구성	개별 모니터 한 후 월2회 토론	기관지 '월간함께기는 여성'의 고정란에 게재	현재는 활동이 활발치 않으나 곧 다시 재개할 예정

단체명	대표자및활동인원	모임구성	운영방법	결과처리	모집방법및기타
서울 YWCA 'TV방송 모니터팀' (777-5726)	고홍애 간사 20~25명	—	—	—	현재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 하여 훈련중
서울 YMCA '청소년영상 클럽' (732-8291)	이승정 간사 10~15명	고등학교 1, 2 학년들을 대상 으로 구성	월 2회씩 모임 을 갖고 토론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올바른 선별능력을 키 우고 전전한 청소년문화를 지향
'보리 모니터회' (712-5813)	김병주 30여명	MBC, KBS- 1TV, KBS- 2TV 등 3개 모니터 팀으로 구성(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불교 신자들이 많 다)	월 2회씩 각 팀별로 모여 토론	보고서로 작성 하여 방송사· 언론사·유관 단체에 배포하 여 시정을 촉 구	1년에 4회씩 실시하는 미디 어 교육에 참 가한 사람에게 회원자격이 주 어지며, 회원 들에게 별도로 모니터교육을 실시함
대한가족 계획협회 홍보부 (634-8212)	이순애	—	전문 모니터 요원들과 협회 내관련 부서장 이 모여 월 1 회 정기 모니 터 회의개최	모니터 결과를 자체 사업 방 향에 반영	인구와 가족계 획, 성교육, 모 자 보전에 관 련된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모니터

단체명	대표자및활동인원	모임구성	운영방법	결과처리	모집방법및기타
대한간호 협회 사업부 (279-3618)	김종숙 부장	각 지방에 15 명정도의 모니 터 요원들이 수시로 지적사 항을 보고	—	보고가 들어온 안전에 대해서 시정촉구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묘사를 중심으로 모니 터
한국 소비자 연맹 방송광고 분과위원회 (794-7029)	김성숙 실장	‘소비자 대학’ 참가자를 중심 으로 구성	—	—	방송 소비자로 서 올바른 주 권의식을 갖기 위한 취지로 출발

2. 법적·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활용할까

법적·제도적 장치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0조, 제17조, 제21조 그리고 제22조인데 각조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언론, 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학문,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써 보호한다.

이상의 기본정신을 최대한으로 살피면서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좋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가 대중매체별로 실시되는데, 그 심의기관으로는 방송심의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등이 있다. 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IV-2〉 대중매체별 심의위원회

구 분		회 의	구 성	주 요 기 능
방송심의 위 원 회	방 송 심 의 소 위 원 회	주2회	심의위원 9명	방송내용의 사후 심의
	TV영화심의 소위원회	주2회	심의위원 8명	TV영화의 사전 심의
	광 고 심 의 소 위 원 회	주2회	심의위원 9명	광고방송의 사전 심의
	언 어 심 의 소 위 원 회	주2회	심의위원 5명	방송언어의 심의
공 연 윤 리 위 원 회		기관별 1 회	위원 15명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기타 공연물 사전 심의
간 행 물 윤 리 위 원 회		월1회	위원 33명	도서, 잡지, 주간신문, 만화의 사후 심의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월1회	위원 12명	일간신문, 제재기사 및 광고의 사후 심의

먼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방송법 제1장 총칙, 제5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6항에서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 퇴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를 보다 심도있게 취급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2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그 품성과 인격이 진취적이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보도방송

제19조 방송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미성년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의 성명, 주소, 사진 및 기타 본인으로 추지될 수 있는 내용

제3장 교양방송

제23조 방송은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의 교양과 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장 오락방송

제47조 방송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괴성, 고함 및 소란행위 등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 청소년 방송

제51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적, 정서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선린, 우애정신이 배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래문물을 무분별하게 선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제 기준에 따라 1990년도 규제 대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90년도 부문별 사유별 방송심의 및 의결현황

부 문	사 유	텔레비전	라디오	계
보 도	방송의 공정성 위배	3	4	7
	개인/단체의 명예훼손	2	18	20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 및 미성년 피 의자 인적사항 공개	2	5	7
	소 계	7	27	34
사 회 교 양	특정 영리업소에 대한 간접선전	8	24	32
	*어린이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인 영향	4	9	13
	개인/단체의 명예훼손	1	2	3
	타종교의 비방 및 배척	2	7	9
	위법행위 조장		1	1
	계층간 위화감 조장		1	1
	여과되지 않은 과격한 표현		1	1
			1	1
	소 계	15	46	61
연 예 오 략	*어린이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8	8	16
	불건전한 내용의 외설적 언어구사	23	11	34
	살상장면 과다묘사 및 회화화	2		2
	부도덕한 애정관계 및 선정적 장면묘사	6		6
	미신 및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1	1
	특정 영리업소에 대한 간접선전	15	11	26
	방송금지가요 및 부적가사 방송	1	1	2
	소 계	55	32	87
광 고	방송시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광고물	3	1	4
	소 계	3	1	4
기 타	협찬주에 대한 수식어 사용	6	14	20
	합 계	86	120	206

자료 : 방송위원회, 『1990년도 연차보고서』

〈표 IV-4〉

’90년도 광고방송 방영불가 사유별 현황

사	유	텔레비전	라디오	계
허위과장 표현		30	6	36
*어린이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		87	6	93
건전한 정서함양 및 광고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		128	6	134
바른 언어생활 확립에 유해한 표현		49	2	51
선정적 자극적 표현		90	1	91
외제선호 및 국민감정을 해치는 표현		3		3
약효과장 및 오/남용 표현		33	8	41
타상품에 대한 배타적 표현			1	1
경품 및 할인판매 표현			2	2
심의세칙에 광고금지 광고로 규정된 광고		4	2	6
기타		51	4	55
합	계	475	38	513

자료 : 방송위원회, 『1990년도 연차보고서』

한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간행되는 도서·잡지·주간신문 및 만화의 질적 향상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출판인·잡지인·주간신문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언론 공익단체로서,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잡지협회·한국주간신문협회 등 3개 기간단체와 한국출판협동조합·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대한인쇄문화협회 등 3개 출판 관련단체, 그리고 서울 YMCA·서울 YWCA·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부인회·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등 모두 12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잡지·주간신문인들이 스스로 제정한 도서잡지윤리강령과 도서윤리실천요강·잡지윤리실천요강·만화윤리실천요강·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광고심의규정의 준수와 실천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자율심의기구이다.

그러나 자율적 통제방법은 자율이라는 어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언론·출판사의 수용태도 여하에 따라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정관에 윤리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권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구성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케 하고 그 이행의 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85년이래 간행물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주간/월간잡지 심의결과

결정사항 / 연도	85	86	87	88	89	90	계
*미풍양속저해	323	217	204	530	440	338	2,052
품위상실	36	3	3	1			43
*범죄행위 사실적 묘사							12
*경악행위 사실적 묘사	12						
*불건전							
정신불안조성							
사실왜곡			1				1
광고불표시	49	4		1	2		56
광고불건전	114	84	34	17	6	21	276
명예훼손	1	5	7	3			16
독자기만							
공공성상실							
진실성위배							
미신행위조장	1	15	4	10			30
타종교비방							
타민족모독							
출처불명시	3						3
안보저해							
유통질서 문란							
표절							
필자불명시							
*아동정서유해							
*폭력행위 사실적 묘사							
비난의 대상							
*사회악영향		14	12	6	2	1	35
과장표현	58						58
규약불준수	1				1	6	8
무단전제				2			2
합 계	598	343	261	570	451	416	2,639

자료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결정목록(1989 1월-1990년 12월)

〈표 IV-6〉

주간신문 심의결과

결정사항 / 연도	85	86	87	88	89	90	계
품격저하							
*미풍양속저해	76	53	33	19	1		182
보도와 논평 태도위반							1
명예훼손	1						
출처불명시							
공공성상실							
과장보도							
광고불건전	11	18	3	2		1	35
광고불표시	3						3
과장표현	17						17
*사회악영향		2	4				6
*경악행위 사실적묘사	1						1
미신행위조장		14	10				24
합 계	109	87	50	21	1	1	269

자료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결정목록(1989년 1월-1990년 12월)

이처럼 정기간행물의 경우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기승을 부리던 미풍양속저해 전수가 줄어들어 반하여, 최근에는 만화가 사회문제시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는 만화는 현재 대본소에서 유통되는 청소년만화가 대부분으로서 심의결과 문제가 없는 만화에는 심의필인을 교부하여 발행케 하고 있는데, 1970년 1월 당시에는 주로 아동만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5년 이후에는 청소년만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행권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판자율화 조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일부 만화가 및 출판사들은 수요 급증에 따른 다작으로 상업성만을 추구, 일본만화를 모사 또는 표절하는 사례도 있으며 영상매체에 영향을 받은 탓으로 폭력성 묘사가 점증적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1990년도에 21개 만화 전문출판사 및 작가 178명에 지나친 폭력성 묘사에 자제를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거나 간담회를 통해 만화 전전화를 도모한 바 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정기간행물의 등록규제조치가 완화되자 대중오락지나 만화전문지가 대폭 창간되는 등, 만화를 게재하는 매체가 급증하면서 성

인독자 대상임을 빙자하여, 노골적인 남녀 정사장면등을 경쟁적으로 게재하는 경향이 있어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때를 같이하여 정간명령 등 행정조치와, 발행인 구속 등 사법조치로 1990년 말에는 성인만화 내용이 다소 순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5월 서울문화사의 「드레곤 불」을 시작으로 아동용 일본만화 복사번역물이 26개사에서 총 30종이 발행되어 그중 일부는 지나친 잔인성과 선정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청소년 대상 외국만화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계사회단체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목적과 그 기능은 공연법 제25조 3의 ①에 의거한 바와 같이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 향상케 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기풍을 진작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기능은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확인이 있다.

사전심의는 영화 분야의 외국영화 수입 심의, 가요·음반분야의 국내·외 가사 및 악보 심의, 비디오 분야의 비디오 창작영화 심의, 외국 비디오 수입 심의, 창작기획물 심의 등이며, 사후심의는 영화분야의 국내·외 극영화 본심의 및 문화영화 심의, 가요·음반 분야의 국내·외 완제음반 및 음반도서납본 심의, 비디오 분야의 국내·외 극영화, 창작 기획물 심의, 무대공연물 분야의 연소자관람대상작품, 외국인 공연작품의 연극 및 기타 공연물 심의, 광고물 분야의 예고편 및 광고영화 심의, 영화 및 비디오광고물 심의 등이다.

사후확인 작업은 심의내용과의 상위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케 되며, 아울러 심의에서 문제점이 과다하게 지적되었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공연물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공연물의 공연실태, 연소자 관람 여부, 음반의 유통실태, 광고물의 불법행위 여부등을 확인하게 한다.

1990년도 공연물 심의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IV-7〉

’90년도 공연물 심의결과

(90.1.1~12.31, 단위:편)

결과 분야별	구 분	합 격	제한합격	불 합 격	계
영 화	국 영 화 방 화	52	61(1)		113(1)
	외 화	126(1)	150		276(1)
	문 화 영 화 방 화	2			2
	외 화	4			4
	복 사 판 영 화	8			8
	외 화 수 입 심 의	311(1)		16	327(1)
	문 화 영 화	21			21
	계	524(2)	211(1)	16	751(3)
	구 분	통 과	개 작	반 려	계
무 대 공 연 물	연 국 창 작 국	109(7)		1	110(7)
	번 역 국	61(1)			61(1)
	음 악 회	943			943
	음 악 국	15			15
	국 악	33			33
	무 용	114			114
	쇼	45			45
	유 흥 업 소	173			173
	기 타	7			7
	계	1,500(8)		1	1,501(8)

자료: 문화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소년을 위한 우수 영화·비디오 추천제도〉이다.

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우수영화·비디오 추천제도’를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청소년을 위한 우수영화·비디오 추천제도’는 영화·비디오 등으로 심의 신청되는 국내외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익한 내용의 우수작품을 선정, 이를 추천하여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물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도덕적 가치함양과 교육적인 문화환경 조성에 한몫을 다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법적·제도적 대책 방안으로는 순기능의 활성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재창(1991)은 그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주장한 바 있다.

첫째, 대중매체의 모든 내용을 성인용, 청소년용 등으로 철저히 분류해서 제작과정에서부터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제작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즉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목적에 맞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일반 시민들이 대중매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항상 대중매체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지적하고, 건설적인 건의도 해야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마련되어도 국민적 감시기능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 또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법과 생활이 함께 갈 때만이 법도 지켜지고 생활도 행사될 것이다.

제 5 장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제안 1.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조사연구하자.

한국방송공사는 1981년부터 매 2년마다 “과학적인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사회일반의 각 분야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나 청소년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이점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조사연구를 보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 일은 문화부나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고 국민생활시간조사와 같이 매년 2년으로 하기 어려우면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 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중매체의 활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자.

국제화,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어 학습과 컴퓨터학습의 붐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시대에 대한 관심은 대중매체 종사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국한되고 수용자의 관심은 아직 미약하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국민학교에서부터 대중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일반 교과목의 수업이 대체로 종결되는 방학직전이나 학년말에 「대중매체학습주간」을 설정하여 「대중매체교실」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대중매체교실에서는 대중매체의 올바른 활용법을 전문가의 강연, 시청각 교육, 사례발표, 토론, 견학 등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교실」에 필요한 교과과정은 산하에 교육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 3. 방송국, 신문사 등 대중매체의 공급자들이 청소년을 위한 대중매체 교육을 실시하자.

대중매체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대중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질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대중매체는 그 이유를 소비자인 대중에게 전가시켜왔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방송국은 「정보데이트」와 같은 양식으로 「대중매체 활용법」을 제작하여 청소년 이용시간대에 연중 방영하고, 신문사는 신문에 고정란을 두며, 본격적인 대중매체교육은 교육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나 재생시키거나, 재편집해서 일선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에 실비로 대량 보급하는 것이 요청된다.

제안 4. 학교에서 학교방송, 학교신문, 교지, 학급 문집 등 교내 대중매체를 활성화시키자.

대중매체는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대중사회에서 청소년은 대중매체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중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교실마다 있는 게시판과 학교마다 있는 교지와 학교방송 등은 학교라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훌륭한 “대중매체”일 수 있다. 또한 최근 여러 학교에서 일선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학급문집의 발간, 학교신문의 발간 등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교당국은 이를 억압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장려하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공간, 시설 그리고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내의 여론을 조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학생회의 활동을 장려해야겠다. 교내의 민주화와 교내의 대중매체의 활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안 5. 학교에서 각종 동아리활동을 장려하자.

대중매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일반적으로 몇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의사 전달의 폭이 “대인매체”에서 “대중매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모임활동의 경험이 요구되는데, 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이 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대개 동아리는 취미와 관심에 의해서 성원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은 취미 생활과 함께 시민생활을 익히게 한다. 아울러 방송반, 신문반, 편집부, 사진반, 영상반 등의 활동은 교내 대중매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장차 우리사회의 대중매체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교칙과 학생회칙에 동아리활동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개별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야겠다. 현재의 학교재정상 모든 동아리활동에 재정보조가 어려우면, 동아리 연합축제 등 연합행사만이라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생회비가 학생지도 활동 보다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많이 쓰이도록 하여야겠다.

제안 6. 방송국, 신문사 등 대중매체의 공급자들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현재도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 독자투고, 신청곡 엽서 발송, 공개방송 방청 등의 방식으로 대중매체에 참여하고, 방송사, 신문사 등이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직접 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비교할 때 중·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경연대회는 매우 적고, 더욱이 중학생들에게는 그 기회가 매우 적다.

그러므로 각종 대중매체는 수용자이고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컨대, 내가 찍은 비디오, 우리가 본 우리들의 생활뉴스 등), 특히 경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대중매체 공급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학교, 직장,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될 때 생기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중·고등학생의 지역단위 동아리축제 등 연합축제에 협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제안 7.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가정용 대중매체 활용 지침서를 개발하자.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행태는 대부분 부모의 대중매체 이용행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TV바로보기라든가 대중매체를 생활의 소식통으로 활용하는 것 등은 부모가 솔선수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모들의 세대는 대체로 어린시절에 대중매체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학교 등에서 대중매체 활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매체 활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청소년연구원, 문화발전연구소, 방송개발원, 교육방송국 등 관련된 기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점에서 최근에 나온 「신문소프트」 등은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안 8. 대중매체에 대한 청소년 모니터 모임을 지역단위로 발전시키자.

현재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 모임은 TV감시에 집중되어 있고 신문, 잡지에 대한 감시를 비교적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비디오, 만화, 영화, 유선방송 등에 대한 감시활동은 매우 부진하다.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활동이 서울지역과 몇몇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서울 지역에서조차도 지역사회단위로는 일과성 캠페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를 대중매체별로 특화시켜서 고루 발전시키고 청소년 모니터 모임을 조직하여 청소년의 시각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불량 대중매체 퇴치를 위한 사회운동을 발전시켜야겠다. 특히 비디오, 유선방송, 만화, 전자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감시활동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안 9. 방송심의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 각종 대중매체 심의위원회에 청소년을 참여시키자.

대중매체에 대한 각종 법적·제도적 통제기관은 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주로 사회적

명인사와 대중매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을 통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의 대표가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제안이다. 전국단위 청소년단체의 대표나, 대중매체에 대한 청소년 모니터 모임의 대표 등이 그 위원으로서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려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청소년은 단순히 건전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은 올바른 성장의 주체이다. 대중매체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단순히 소비자나 수용자가 아니라, 대중매체의 생산자이고 창조자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그들의 창조력을 억압하여 왔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말하고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만이 참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내 동아리활동과 교내 대중매체의 발전없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중매체는 발전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권성호, '교육이념과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연구 1987 여름호, 방송위원회, 1987.
- 김 규, '공영방송과 시청자',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6.
- 김 규·최창섭·전화성, '방송 심리학 연구서설', 서강인문연구논문집14, 1984.
- 김 규 편저, 텔레비전환경론, 나남, 1989.
- 김수연, 학교행사 운영의 실제, 교육과학사, 1990.
- 도종수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마리온 하워드 지음,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실 옮김,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성적인 고민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한겨레, 1990.
- 문화방송, '91 MBC청소년백서, 1991.
- 미래사,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미래사, 1988.
- 박성주, '청소년과 방송문화사업', 방송연구 여름호, 방송위원회, 1985.
- 방송연구 여름호, 방송위원회, 1984.
- 방송 '91, 1~8월호, 방송위원회, 1991.
- '방송과 시청자' 9~11월호, 방송위원회, 1991.
- 서성욱, '어린이를 위한 텔레비전 시청지도',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1987.
- 원우현, 매스 미디어와 문화발전, 범우사, 1984.
- 윤 진,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이광훈, '청소년대상방송과 고정관념의 벽', 방송연구 여름호, 방송위원회, 1983.
- 이근삼, 'TV드라마와 청소년',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1985.
- 이상석,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친구, 1988.
- 이상희·유재홍, 'TV 프로그램 시청동기와 만족에 대한 조사 - TV 시청형태와 시청 후 반응에 대한 심층분석', 한국방송연구, KBS, 1988.
- 이선미, '텔레비전시청자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이신복, 국민의 방송참여체제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조사연구보고서 제9집, 방송위원회, 1986.

이오덕,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한길사, 1989.

이오덕, 참교육으로 가는 길, 한길사, 1990.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 미디어, 전예원, 198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용 특별활동 지침서, 미래사, 199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학생자치활동1, 푸른나무, 1990(a).

————, 학생자치활동2, 푸른나무, 1990(b).

신문소프트, 정보성, 1991.

정원식, ‘청소년의 미래와 방송의 사명’,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198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천지, 1991.

차배근, ‘방송 수용자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6.

최선렬, ‘청소년과 미디어 교육’,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1985.

최창섭, 미디어 교육론, 나남, 1985.

최창섭, 방송총론, 법문사, 1991.

최창섭, ‘텔레비전의 환각에서 깨어나자’, 월간조선 11월호, 1984.

최현섭,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방송연구 봄호, 방송위원회, 1985.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청소년 무크3, 친구, 1991.

푸른나무이야기모임, 푸른나무, 1988(a).

————, 푸른나무2, 1988(b).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문화—나아가야 할 길, 간행물 윤리 세미나 문집, 1989.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밥먹으며 시계보고 시계보며 또 먹고, 사계절, 1989.

————,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 한길사, 198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 1988.

한국방송공사,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한국방송공사·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전국 TV, 라디오 시청형태 및 의견조사, 1987.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 아카데미, 1990.

한승희외,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한진만, ‘각국의 시청자 운동’,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6.

호현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방송연구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6.